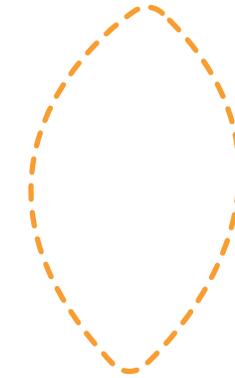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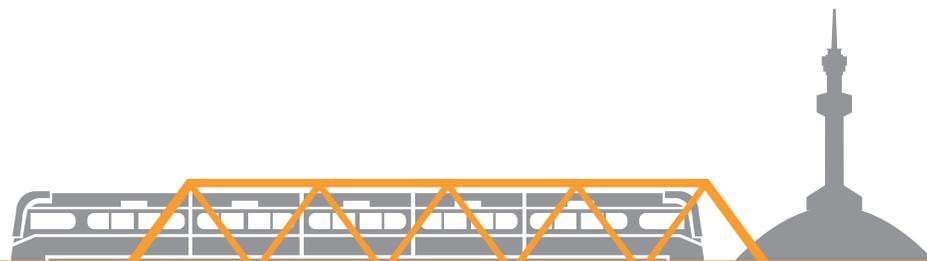
함께 사는 사회로 가는 나눔의 생활화

2014 아름다운재단 나눔가계부

 아름다운재단
The Beautiful Foundation

기부자님들의 1% 나눔이 모여
100%의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듭니다.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힘
꾸준한 참여에서 시작됩니다.





2014년 아름다운재단 살림살이를 보고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2014년의 아름다운재단 살림살이를 보고 드립니다. 지난해에 아름다운재단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사회 모든 사람이 일상 속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개인과 공동체가 모두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에는 우리 국민 모두를 비탄에 잠기게 했던 세월호 참사가 있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참사가 나자마자 미력이나마 유가족을 돕고 그 분들의 상처를 보듬고 상흔을 치유하기 위한 공간을 만들어 심리상담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참사를 사회적으로 기록하기 위한 사업을 돕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아카이브와 다큐멘터리 제작에 조력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억0416 캠페인>도 진행하여 많은 국민들의 성원을 받았습니다. 연초에는 손해배상 가압류로 고통받는 근로자와 가족들의 생계 지원을 위한 <노란봉투 캠페인>을 실시하여 목표모금액 4억7천만원을 15일 만에 달성하였고, 이후

2차·3차 모금캠페인까지 펼쳐 최종 목표였던 4만7천명의 참여를 초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이른둥이들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다솨이작은숨결살리기' 사업이 1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 동안 아름다운재단은 이 사업을 통해 약 1900건에 달하는 이른둥이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연구교육 분야의 사업으로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기부문화 관련 석박사 논문지원사업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은 다양한 분야의 기부문화 관련 연구자들을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기부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이 소장하고 있던 기부문화 도서 500여권을 서울도서관에 기증해 '나눔문화컬렉션'을 개설한 것도 지난해의 사업 중에서 특기할 만한 것입니다.

모금과 관련해서 보고드릴 사안으로는 주피터필름이 영화 <관상>의 수익금 절반을 재단에 기부한 사실을 우선 들 수 있습니다. 주피터필름은 지난 2012년 영화제작을 시작하면서 이례적으로 수익의 50%를 기부하기로 아름다운재단과 협약하였으며, 지난해에 그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배우 유아인 님 또한 지난해 자신이 시작한 의류브랜드의 수익금 1억원을 기부하여 '뉴키즈유아인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유아인 님은 지난 2012년 아름다운재단이 시설 아동들의 급식 개선을 위해 진행한 <나는 아이들의 불평등한 식판에 반대합니다 캠페인>에도 거금을 기부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유아용품 전문업체 '세피앙'과 '한국도요타자동차' 및 'LG생활건강', '머피컨텐츠', '꿈을담는틀'과 같은 기업들이 10년 동안 다양한 형태의 기부를 통하여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공동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지면을 빌려 기부자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끝으로 박준서 사무총장이 지난해에 취임하였습니다. 박 신임총장은 비영리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해 온 국내의 대표적인 모금 전문가로서 아름다운재단의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한 해 여러 기부자님들께서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올해에도 '함께 사는 사회로 가는 나눔의 생활화'를 위한 저희들의 노력은 계속될 것임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이사장 예종석

01 여는글

아름다운재단 소개

- 02 아름다운재단의 비전과 미션
- 04 아름다운재단의 목적과 활동
- 06 아름다운재단과 함께하는 사람들
- 07 투명한 아름다운재단

특집

- 08 329가구의 작은 희망... 함께 손잡습니다
- 10 <노란봉투 캠페인> 첫 기부자 배춘환 님
- 11 세월이 세월호를 잊지 않도록
- 12 <기억0416 캠페인> 지원사업 이야기
- 14 한눈에 보는 2014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재단 사업

- 18 변화의 시나리오
- 20 꿈꾸는 다음세대
- 22 사회적돌봄
- 26 연구교육 · 캠페인

아름다운재단 모금

- 28 아름다운재단 2014 새 기금
- 29 <노란봉투 캠페인>
- 30 <기억0416 캠페인>
- 31 생애주기나눔
- 32 아름다운 기부자 이야기

아름다운재단 살림살이

- 38 한눈에 보는 2014 아름다운재단 재정
- 40 재무제표
- 44 외부 감사인의 보고서
- 46 2014 사업별 기금 안내
- 49 기부자 명단



아름다운재단의 비전과 미션

비전

함께 사는 사회로 가는 나눔의 생활화

비전선언문

아름다운재단은 모든 사람이 “함께 사는 사회”라는 미래 사회에 대한 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 행동적 비전으로써 모든 사람의 “나눔의 생활화”를 함께 추구합니다.

“함께 사는 사회”는 모든 구성원들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받는 사회입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성, 지역, 연령, 인종, 더 나아가 도덕, 제도, 종교, 정치, 금전, 신체조건 등 그 어떠한 기준으로도 차별받지 않는 평등권을 통해 지킬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모든 이들의 평등권을 기반으로 “함께 사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탄생부터 죽음까지 동등하게 행복할 권리를 존중받고, 가능성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으며, 사회의 동등한 일원으로서 상호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통해 평화를 추구하도록 지원합니다.

더 나아가 이를 방해하는 근본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하기 위해 협력합니다.

“나눔의 생활화”는 모든 구성원이 함께 사는 사회에 대한 공감, 상호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인생주기 전반에 걸쳐 일상 속에서 나눔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눔”을 일방향적 개념이 아니라, 나눔의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함께 행복해지는 순환적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우리는 “함께 사는 사회로 가는 나눔의 생활화”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개인, 단체, 지역사회와 대화하고 공감을 이끌어 내며 이를 바탕으로 협력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비전의 실현이 변화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는 생각으로, 모든 활동 영역과 과정에 측정 가능한 기준을 제시하고 확인합니다.

미션

시민공익활동을 키워가는 창의적 서포트재단

미션선언문

아름다운재단은 변화를 위한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지속적 변화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연대체로서, 다음의 사명을 수행합니다.

“공익활동의 지속가능한 모델의 인큐베이터”로서 전통적 자선형 활동 모델을 넘어, 변화를 추구하는 활동 모델 개발을 추구합니다. 협력과 연대를 활동의 근간으로 삼아 비전을 함께 실현할 단체를 발굴합니다. 더 나아가 단체의 설립과 사업, 자립을 지원합니다.

“행동하는 시민 기부문화의 확산자”로서 나눔의 올바른 정의를 도출합니다. 나눔의 과정에 참여하는 개인(기부자·지원자), 기업, 단체, 정부 등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올바른 나눔문화의 정착과 확산에 기여합니다.





아름다운재단의 목적과 활동

목적과 활동

아름다운재단은 우리 사회에 올바른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도움이 필요한 소외계층 및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데 활동의 목적을 둡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우리 사회의 시민의식의 성장과 공동체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개인 및 단체를 지원합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정당을 비롯한 모든 정치적 단체에 대하여 중립적 입장을 견지합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합니다.

1. 올바른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사업 전개
2. 개인 및 단체의 지정기탁에 따른 공익기금 및 특정주제를 갖는 목적형 기금 조성
3. 기업과 사회의 상생적 발전을 위한 기업 사회공헌 프로그램 전개
4. 지속 가능한 공동체의 발전,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익사업 지원
5. 기부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적 연구 및 제도개선 사업 전개
6. 저소득층의 자활과 자립을 위한 무담보 무보증 대출사업 전개
7. 기타 재단의 목적사업 달성에 필요한 사업



사업가치 H·O·P·E

아름다운재단의 미래 사회에 대한 비전인 “함께 사는 사회”는 모든 구성원이 존엄과 가치를 존중 받을 때 실현됩니다. 아름다운재단의 사업은 사회 구성원의 탄생부터 죽음까지의 인생 전반에 걸쳐, ‘행복할 권리’, ‘가능성에 대한 기회의 보장’, ‘이해와 존중을 통한 평화 추구’ 등을 기본적 권리로써 규정하고 지원합니다.

아름다운재단은 다음의 3대 사업가치를 추구합니다.

행복(Happiness)

모든 구성원의 삶의 기본이 되는 의·식·주 조건을 행복의 기본 조건으로 규정하고 이를 지원합니다.

기회(Opportunity)

모든 구성원의 미래 가능성에 대한 현재의 육체적, 재정적, 정신적 기회를 지원합니다. 협력단체들에 대해서도 비전 실현의 동반자로서 가능성에 대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평화(Peace)

모든 구성원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갈등과 반목을 배격하고, 화해와 평화를 추구하는 사업을 지원합니다.

아름다운재단은 모든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회의 모든 구성원(to Everyone)에게 행복(Happiness)과 기회(Opportunity)와 평화(Peace)를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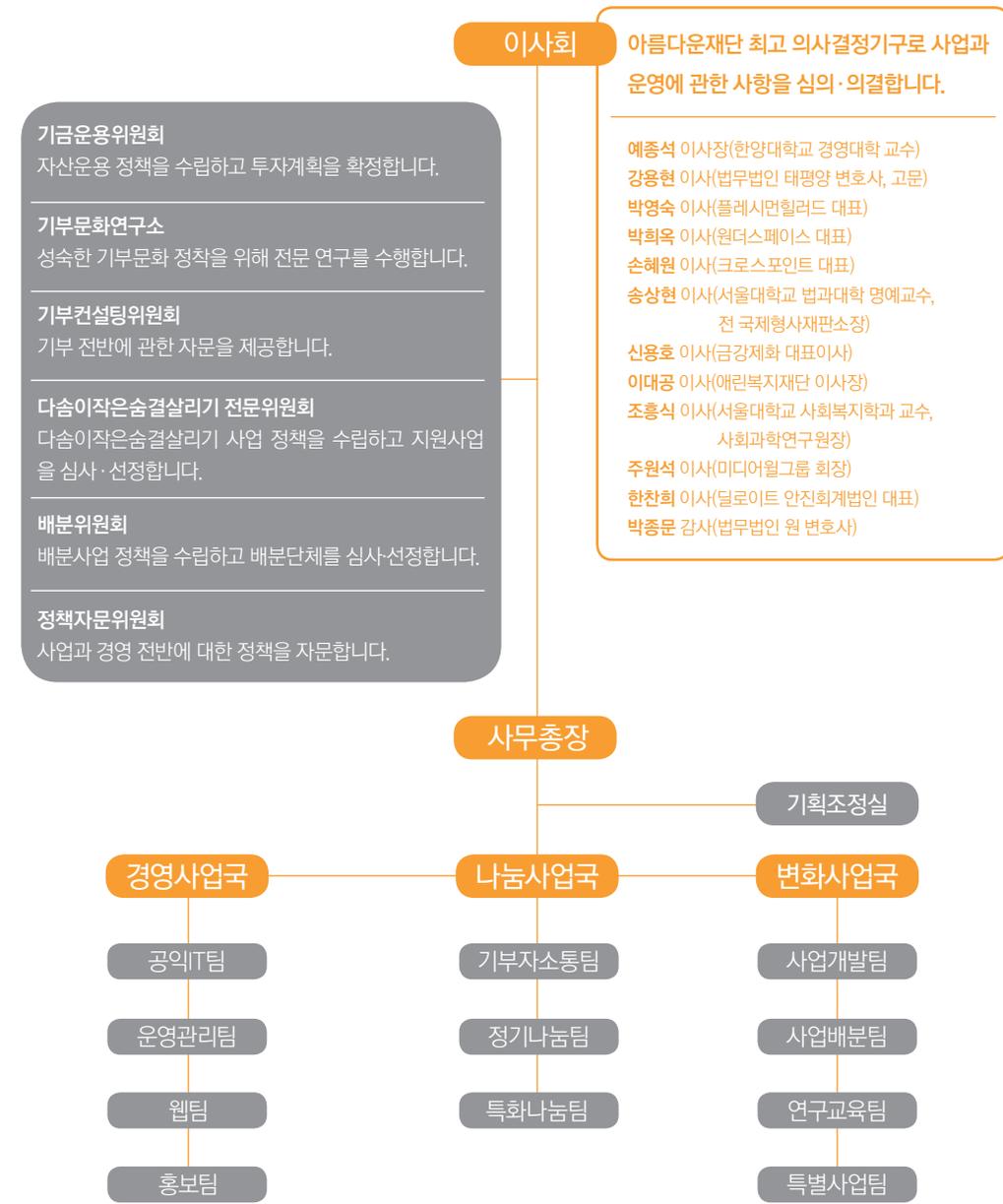
Happiness, **O**ppportunity, **P**eace to **E**veryone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정직하고 깨끗한 나눔문화를 만들어갑니다.

나눔은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서로에게 힘이 되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의 가치입니다.



* 아름다운재단에는 학계, 재계, 금융, 홍보PR, 의료, 법조, 회계, NPO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4명이 이사 및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욱 전문적이고 투명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재단 모금의 투명성과 사업의 공익성이 증명됐습니다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아름다운재단의 입장

2015년 1월 13일 아름다운재단은 반가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검찰이 아름다운재단에 대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모집법)’ 위반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참 오랫동안 지속됐던 검찰 조사로 마음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정말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번 결정은 당연한 귀결이었습니다. 애초에 이번 고소고발은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보수 성향의 단체가 아름다운재단 이사로 재직했던 박원순 후보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보수 단체들은 아름다운재단을 비롯하여 박 후보가 참여했던 단체들에 문제제기를 했지만 정확한 근거는 없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그동안 구체적 근거 없는 의혹 제기과 잇따른 고소고발, 그에 따른 검찰 조사 등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고소고발로 인해 아름다운재단의 활동에 의구심을 품어 돌아섰던 기부자도 있었습니다. 기부문화를 선도하고 시민들의 기부 참여로 사회변화를 이끄는 데 집중해야 할 시기에 의도성이 짙은 고소고발로 아름다운재단의 신뢰가 저하되고 기부문화를 저해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검찰의 ‘기부금품모집법 위반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정말 반갑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이 진행한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증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부금품모집법의 문제점도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고소고발의 근거가 된 법 조항은 1천만원 이상의 모금에 대해 사전 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관련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번 고소고발 사례와 같이 공갈협박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큼니다. 아름다운재단의 기부자와 협력단체, 지원자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사회 변화를 위해 노력하는 비영리단체들에게도 위협입니다. 실제로 고발인은 국내 100여개 비영리 단체들도 추가 고발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 전문가들은 “기부금과 관련된 사기·공갈·횡령 등에 대해서는 현행 형법을 통해서도 충분히 규율되고 있다. 자발성에 기초한 기부행위를 국가가 통제한다는 것부터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고 지적하면서 법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미 국회에는 지난 2013년부터 기부금품모집법 개정안이 여러 개 발의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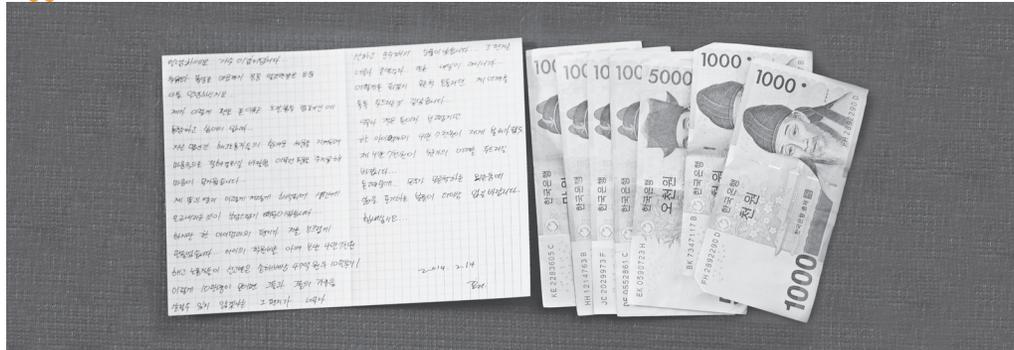
아름다운재단은 이번 결과를 계기로 공익활동 및 사회적 약자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 단체들과 함께 힘을 모아 기부금품모집법 개정을 추진하고, 한국 사회에 건강한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사무총장 박준서



〈노란봉투 캠페인〉

329가구의 작은 희망... 함께 손잡습니다



손해배상 가압류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와 가족들을 위한 〈노란봉투 캠페인〉. 참 민감한 이슈였지만 아름다운재단은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 교육비를 줄이고 병원에 가지 못한 채 끝없는 불안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누군가 이들의 손을 잡아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손배 가압류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모임 '손잡고', 시사주간지 〈시사IN〉과 함께 〈노란봉투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단 보름만에 4억7천만원을 달성하고, 4개월 동안 약 14억7천만원에 달하는 금액이 모금됐습니다. 시민들이 보내주신 소중한 기부금을 통해 긴급생계비·의료비 지원과 법률 및 인식 개선활동에 나섰습니다.

4명 중 1명 소득 없고, 10명 중 4명 의료비 부족...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름다운재단은 14억6529만3816원을 들여 총 329가구에 긴급생계비·의료비를 지원하고, 법률 및 인식 개선 사업을 펼쳤습니다.

김두식(경북대 법학과 교수), 남기철(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수호(손잡고 운영위원), 이숙이(〈시사IN〉 편집국장), 좌세준(변호사) 심사위원 등 5명이 머리를 맞대고 집중심사를 벌여 지원자를 선정했습니다. 가구원 수, 피해자나 가족들의 치료비 상황, 자녀 양육이나 부모 부양 여부, 현재 수입 등도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공모 과정에서 확인된 현실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김두식 심사위원장은 "피해가구 대부분 지원이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가구원 모두 소득이 없는 지원자가 86명(26%)이었고, 가족 소득도 부인이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거나 부모에 의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한 신청자는 신청 사유란에 '쌀 20kg x 12개월 = 576,000원'이라고 적기도 했습니다. 식비·가스비·월세 등 기본적 의식주가 시급했던 것이지요.

자신이나 가족의 의료비를 신청한 지원자는 139명(42%)이었는데, 대부분 디스크·고혈압·당뇨·혈관질환·정신질환·암·희귀난치병 등 장기적인 질환을 겪고 있었습니다. 18명(5%)은 파업 및 농성 과정에서 몸을 다쳐 후유증을 앓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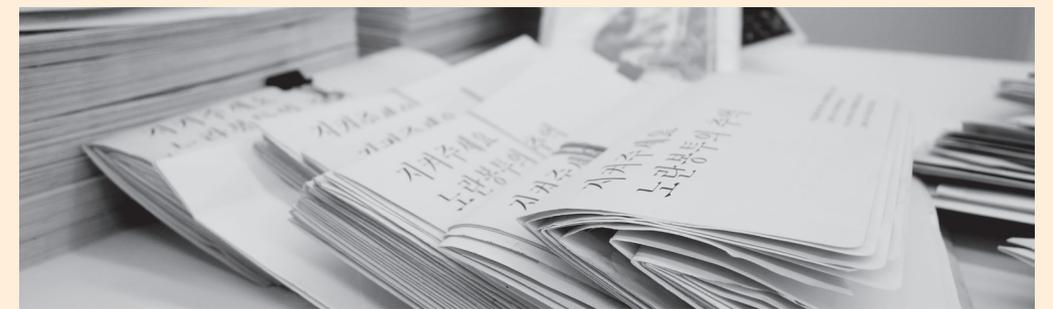
소득이 거의 없는 데 반해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너무 거대했습니다. 적게는 약 8만5천원부터 많게는 약 157억원에 이르렀고, 대부분 억대의 금액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정이 행복할 리 없습니다. 지원자 9명(2%)은 손배 가압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이혼의 사유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손배 가압류 문제 해결을 위해 법률 및 인식 개선 활동도 함께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에는 국회 입법공청회를 열어 법조인, 국회의원들과 함께 법 개정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연극 〈노란봉투〉를 무대에 올려 손배 가압류의 문제점을 1260명 관객과 나눴습니다. 2015년에도 모의법정, 전문가 간담회, 토론회, 실태조사, 백서 발간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29가구와 우리 사회의 작은 희망이 된 노란봉투. 2015년에도 지원사업을 통해 기부자님들과 함께 기적의 노란 꽃을 피우겠습니다.



“이런 모금이 사라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노란봉투 캠페인〉 기부자들이 남긴 댓글

- “연말정산환급액을 기부합니다. 십억 단위는 자판 세 번 정도만 두드리면 되는 숫자에 불과하지만 그 분들에게는 목숨과 같은 무게이겠지요?”
- “오늘 저녁 술값 아껴서 보내요! 죄송해요, 그래도 막걸리는 한잔 하고 싶어요. 다음엔 그것도 아껴서 보낼게요. 미안해요. 정말”
- “개인 부채가 4700만원 정도 있습니다. 4만7천원은 더 빚져도 됩니다. 비록 4만7천원이지만, 마음은 47억원입니다.”
- “적은 금액이지만 오늘의 야근수당으로 후원해요! 이로 인해 저의 야근은 따뜻해졌네요.”
- “지금 장사도 안 되고 너무 힘든 시기입니다. 당장 카드값 막을 일에 걱정되고 마이너스를 빼서 다 쓰고 잔고도 없지만, 이 분들이 지난 몇 년 동안 긴 터널에서 힘들어 하셨을 것에 비한다면 투정 같네요. 제 아이가 살아갈 세상은 행복하고 따뜻한 세상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 “저도 작년 12월 말에 정리하고 당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취업도 할 수 있고 편하게 살고 있는 거 같아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 “이런 모금이 사라지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노란봉투 캠페인〉 첫 기부자 배춘환 님 4만7천원의 기적, 어둠을 밝히는 노란 불빛이 되다

두 아이의 엄마인 배춘환(39) 님은 2013년 말 주간지 〈시사IN〉을 읽다가 충격적인 기사를 접했습니다. 47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가압류 판정을 받은 근로자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니다.

‘나는 수천만원 아파트 대출금만으로도 이렇게 벅찬데 갑자기 47억원을 빚지게 된 그들은 얼마나 막막할까, 또 그들의 아이들은 얼마나 힘든 삶을 이어가게 될까...’

당시 셋째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던 배춘환 님의 머릿속엔 여러 가지 생각들이 교차했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잘 몰라도, 일자리도 없고 값을 능력도 없는 사람들에게 수십억에 달하는 엄청난 빚을 물린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당신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으니 무너지지 말고 힘내라고 말해주고 싶다. 47억원이 도대체 얼마인지 가늠조차 안 되지만 뒷자리 얼마라도 덜어줄 수 있다면 좋겠다...’

생각이 여기까지 이르자 배춘환 님은 작은 용기를 냅니다. 손에 쥐고 있던 아이의 태권도 학원비 4만7천원을 고스란히 〈시사IN〉에 보낸 겁니다. ‘비록 적은 돈이지만 나와 뜻을 같이 하는 9만9999명이 함께 나서주길 바란다’는 메시지와 함께 말합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외침이 무려 4만7546명의 함성으로 커져갔고, 고작 4만7천원에 불과했던 돈이 무려 14억6869만4745원이라는 거액을 모으는 마중물이 된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배춘환 님은 두근두근하는 설렘을 느꼈습니다.

“처음 편지를 보낼 때만 해도 세상이 너무 캄캄했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세상에서 어떻게 아이들을 키워야 하나, 절망감이 가득했죠. 그런데 〈노란봉투 캠페인〉이 시작되면서 세상에 촛불이 하나씩 켜지더니 점점 밝아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덕분에 당시 뱃속에 있던 셋째를 건강하게 낳을 수 있었어요. 가장 큰 기쁨은 ‘나중에 우리 아이가 커서 여러



운 일을 당하면 누군가는 손을 내밀어주겠구나’ 작은 희망을 발견한 거죠.”

하지만 늘 꽃길만 이어진 건 아닙니다. 금방 불이 울 줄 알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손배 가압류 피해자들의 고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인들조차도 ‘노란봉투 보내도 달라진 거 하나 없는데 뭘 더 하려고 하느냐’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곤 합니다.

그래도 배춘환 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거창한 무언가는 아니더라도,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꾸준히 해나가려고 합니다. 시상식이든 행사든 연극이든, 자신을 불러주는 곳은 어디든 갈 생각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를 이웃과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로 만들어가는 지름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배춘환 님이 피워올린 작은 불씨가 사그라지지 않고 세상을 밝히는 환한 빛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름다운재단도 운동화 끈 확실하게 조여매고 열심히 나눔을 실천해가겠습니다.



〈기억0416 캠페인〉

세월이 세월호를 잊지 않도록



아름다운재단은 지난 2014년 6월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기 위해 캠페인 모금을 진행했습니다. 다른 모금단체보다는 많이 늦은 6월에서야 시작된 모금입니다.

국민성금 운동은 대형 참사 때마다 반복됐지만 그 때마다 논란도 반복됐습니다. 성금이 모인 뒤에 사용처를 결정하다 보니 갈등이 불거지고 성금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자칫 정부 예산으로 해야 할 사업이 국민성금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곤 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꼭 필요한 지원사업을 만들기 위해 안산 현장을 방문해 유가족들은 물론 각계 전문가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긴 고민 끝에 3개 사업 영역을 설계하고 〈기억0416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145일의 캠페인 기간 동안 약 2억7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 모금되었습니다. 이 소중한 기부금이 ‘진정한 도움’이 되도록 아름다운재단은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슬픔이 길어지면 기억도 길어져야 합니다

첫 번째, 시민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참사 기록은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의 토대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은 2014년 한 해 시민들이 참사 기록을 열람하고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기억저장소’ 공간을 지원(약 8천만원) 했습니다. 또한 기록 아카이빙 시스템(약 8100만원)도 구축했고, 유가족들의 삶을 기록한 다큐멘터리(약 9500만원)가 제작 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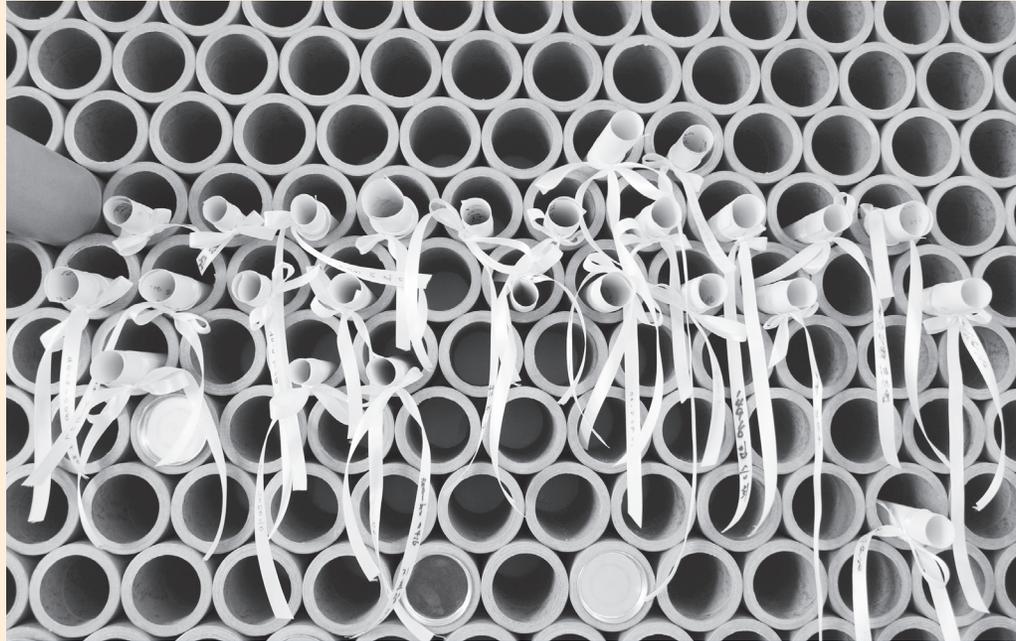
두 번째,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서는 안산 지역내 유가족 방문활동과 치유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복지관 네트워크 우리함께(약 2억1500만원)’에서는 유가족 사례관리는 물론 피해자 형제자매 치유활동이 활발합니다. ‘치유공간 이웃(약 2억 8800만원)’은 치유의 관점에서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희생자 생일모임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해 안산의 지역사회복지관·시민사회단체의 프로그램도 지원하려 합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가 장기화되고 참사 기록과 피해자 치유 사업에 대한 지원도 길어지면서, 이 부분은 아직 진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1640명의 기부금과 아름다운재단의 긴급지원 기금을 통해 지원되고 있습니다. 모금액 약 2억7천만원은 학교 바자회의 수익금, 세월호 추모 동시·동화의 인쇄, 결혼기념일·생일 선물이었습니니다. 잊지 않고 곁에서 오래 지켜주겠다는 소중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울어도, 참사는 현재진행형이고 피해자들의 상처는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슬픔이 길어지면 기억도 길어져야 합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앞으로도 꾸준히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기 위한 지원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세월이 세월호를 잊지 않도록, 마음에 다시 노란 리본을 동여낼 때입니다.

〈기억0416 캠페인〉 지원사업 이야기
그 날의 아픔을 기억합니다



[기억저장소]
잊지 못할 슬픔, 빈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고통스러운 기억, 빨리 지우고 싶은 기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랫동안 이 기억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제대로 된 기록과 기억은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참사는 정부의 초기 대응 실패, 관련 기관 지휘체계 혼선 등 다양한 구조적 원인이 얽혀있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참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시민의 눈으로 이번 참사를 낱알이 기록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재단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록 동참과 소통을 기반으로 참사의 사회적 기록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억저장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억저장소 활동가들은 지난해 6월부터 진도 팽목항, 광화문광장, 피해자 가족의 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현장에서 기록을 수집했습니다. 연인원 2천명의 자원활동가가 함께 맘을 흘렸습니다. 이렇게 모인 기록물 22만 여점에는 피해자 개인이 남긴 기록들은 물론 시민들의

추모기록, 유가족들의 활동기록 등이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 각자의 삶을 세상에 남기기 위해 일일이 가족들을 방문해 구술기록을 받고 아이들의 유품을 살피고 빈 방의 사진도 찍었습니다. 사진가 16명이 함께 참여한 사진은 2015년 4월 '아이들의 방' 사진전으로 이어졌지요. 빈 방을 가득 채운 슬픔 앞에서 다시 한 번 숙연해집니다.

모인 기록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집하고 공유하기 위해서는 공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안산 고잔동에 기억저장소 공간 1호와 2호도 만들었습니다. 여러 건축가들이 머리를 맞대어 설계한 공간입니다. 기억저장소 1호에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 말까지 1천여명이 방문했습니다.



[우리함께] [치유공간 이웃]
우리함께 서로의 이웃이 되겠습니다

희생자 가족과 생존자들이 함께 모여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곳, 돌아와 다시 삶을 시작해야 할 곳은 결국 마을입니다. 피해자들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는 지역 공동체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재단은 지역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활동을 지원합니다. 지난해 6월 안산지역 공동체 회복을 위한 복지관네트워크 '우리함께'가 설립됐습니다. '우리함께'에는 안산 지역의 사회복지사 30여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해 '우리함께' 사회복지사들은 일일이 피해자 가족을 방문했습니다. 워낙 상처가 깊었기에 가족들과의 관계 형성이 쉽지는 않았지만, 이들은 끝내 '곁에 있는 사람'으로 믿음을 얻었고, 유가족 228가정, 생존자 74가정의 현황을 가족카드로 기록했습니다.

'우리함께'는 또한 가족 상담을 통해 일상생활에서부터 배·보상 관련 법률문제까지 다양한 현장의 요구에 답했습니다. 특히 치유의 사각지대인 희생자 형제자매들을 위해 청소년캠프(37명 지원)와 공부방 프로그램(64명 지원)을 열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추석에는 335가정, 성탄에는 300가정에 음식이나 선물 등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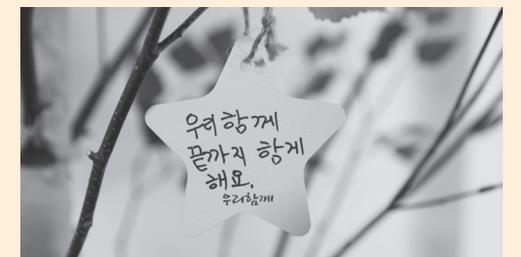
피해자들이 언제든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합니다. 지난해 6월 문을 연 '치유공간 이웃'은 심리상담실이 붙어있는 동네 사랑방 같은 곳입니다. 잃어버린 일상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트라우마 치료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점심·저녁 밥을 나누어먹는 '치유밥상 프로그램'은 한 해 동안 약 2300여명의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주방에는 살림예술가 이효재 님이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직접 구매한 주방용품과 도예가들이 구워낸 밥그릇, 국그릇, 반찬 종이 등이 가득합니다.

희생자들의 생일에 맞춰 열리는 '생일모임'은 오롯이 한 명의 희생자를 생각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지난해 동안 총 5회 진행됐고 모임마다 약 60명이 참석했습니다. 희생자들의 삶을 시로 만들어 낭독하고 여럿이 함께 기억을 공유하면서 가족들의 마음도 조금씩 치유됐습니다.

2015년에도 생생하게 그 날을 기억합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여럿이 함께 있는 곳은 지옥이 아니라고 합니다. 유가족들과 지역 주민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웃이 되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재단은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곁에 있겠습니다. 오래 지켜 주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2014 아름다운재단



기적의 빛깔은 노랑! <노란봉투 캠페인>

아이의 학원비를 아껴 4만7천원을 기부한 평범한 주부의 마음이 우리 사회를 울렸습니다. 손해배상 가입료에 고통받는 근로자와 가족들의 생계 지원을 위한 노란봉투 캠페인에는 4만7천명의 기부자가 참여해 약 14억7천만원을 모았으며, 법률 개선활동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0416 캠페인>

2014년 4월 16일의 아픈 기억을 지키기 위해 아름다운재단은 모금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때의 약속을 하나씩 실천하고 있습니다. 참사의 사회적 기록사업을 진행하고 안산의 치유인프라를 만들고 사회복지사 네트워크 활동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준서 신임 사무총장 취임

아름다운재단에 새로 취임한 박준서 사무총장은 오랜 기간 비영리단체 현장에서 굵직한 모금 프로그램을 기획 총괄해온 국내 대표적인 '모금통'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이번 신임 사무총장 취임을 계기로 더 전문적이고 투명한 재단으로 한국 사회에 기여하려 합니다.



참 똑똑한 나눔 나눔문화컬렉션 개설

더 많은 사람들과 기부를 배우고 익히기 위해 아름다운재단의 기부문화 도서 500여 권을 서울도서관에 기증해 '나눔문화컬렉션'을 개설했습니다. 나눔문화컬렉션에는 해외 기부자나 나눔위인들의 전기, 어린이 나눔도서, 모금과 비영리 역량강화 관련 서적 등 국내외 도서들이 총망라됐습니다.



나눔이 참 예술이네 주피터필름·유아인 님 기부

2014년에는 문화예술계의 기부가 두드러졌습니다. 주피터필름은 영화 <관상>의 수익금 절반을 기부해 나눔교육을 위한 '김윤심나눔교육기금'을 조성했습니다. 배우 유아인님은 콜라보레이션에 참여한 의류브랜드 '뉴키즈 노앙'의 수익금 1억원을 기부해 아동청소년 문화체험활동 지원사업과 아동양육시설퇴소·거주대학생 교육비를 지원하는 '뉴키즈 유아인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식판 바꿔주세요 아동생활시설 급식비 지원 및 정책 개선

2012년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나는 아이들의 불평등한 식판에 반대합니다 캠페인>의 연구결과가 2014년에 나왔습니다. 1년간 제대로 밥을 먹은 시설 아동들이 타시설 아동에 비해 평균적으로 키가 1.6cm, 체중이 2.4kg 더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급식비 지원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알린 결과입니다.

사무총장 취임의 변

“안녕하세요? 아름다운재단 사무총장 박준서입니다”

“좋은 때는 충분히 좋지 않다(When good is not good enough)”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많은 비영리단체들이 던진 질문입니다. 단체가 출범했을 때보다 너무도 빠르게 변하는 외부 환경을 보면서, 처음에 “좋은 것이라”고 계획했던 사업과 활동들이 “더 이상 충분히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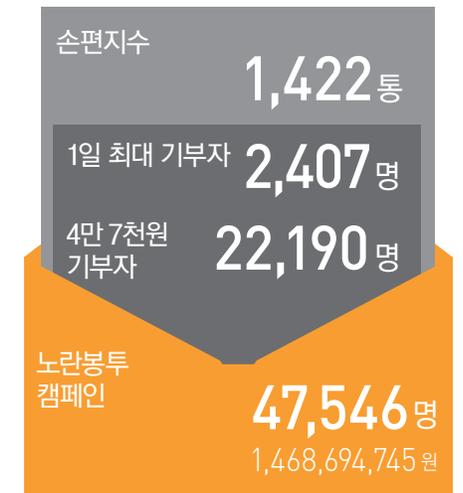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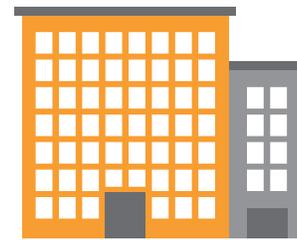
이 질문의 해답은 '변화'입니다. 변화가 없는 사람이 발전을 할 수 없듯이,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없는 기관 역시 더 이상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 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름다운재단의 사무총장으로서 '함께 사는 사회로 가는 나눔의 생활화'라는 비전을 지키고 확산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파트너 기관들과의 협력체계를 확대하고 공고히 하겠습니다. 어려움을 가져오는 원인을 주목하고 순환고리를 끊어내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의 선배 동료들과 함께 외부 변화를 외면하지 않고, 뒤처지지 않으며, 변화에 적합한 우리의 역할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개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 아름다운재단 사업



2014 아름다운재단 모금



공익활동 지원
변화의 시나리오



아름다운재단은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들고 변화의 동력을 키워가는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변화의 시나리오'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총 10개 사업을 통해 139개 단체의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의 권리를 위한 프로젝트, 마을 주민들이 지역예산과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젝트,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위협하는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들이 진행됐습니다.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인해 기자재 부족을 겪고 있는 공익단체와 작은 도서관 등 42곳에 필요한 기자재도 지원했습니다. 또한 32개 공익단체 활동가 50명에게 재충전을 위한 프로그램과 자녀 보육비를 지원했습니다.

| 사업명 | 지원내용 | 단체 | 배분금액(원) |
|--------------------------|--------------------------------|------------|----------------------|
| 변화의 시나리오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 시민참여소통에 기반한 신생 공익단체 인큐베이팅 지원 | 3 | 145,023,120 |
| 변화의 시나리오 스폰서 지원사업 | 공익단체의 3개월 이내 프로젝트 지원 | 37 | 161,459,623 |
|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A 지원사업 | 공익단체의 3년 이내 신규·연속 프로젝트 지원 | 12 | 305,529,531 |
|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 B 지원사업 | 공익단체의 1년 이내 프로젝트 지원 | 11 | 199,057,652 |
| 변화의 시나리오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 | 공익단체 활동가 재충전 프로그램 지원 | 18 | 74,954,759 |
| 변화의 시나리오 특별지원 - 인프라 지원사업 | 공익단체 사무 및 활동 기자재 지원 | 23 | 98,084,326 |
| 변화의 시나리오 특별지원 - 도서관 지원사업 | 작은도서관 도서·기자재 구입 및 프로그램 지원 | 19 | 90,097,772 |
| 변화의 시나리오 활동가 자녀 보육비 지원사업 | 공익단체 활동가 자녀 보육비 지원 | 14 | 49,200,000 |
| 소금창고기금 공익제보자 지원사업 | 공익제보자와 함께 하는 대학생 캠프 지원 | 1 | 4,766,730 |
| 호민기우봉기금 풍력공로자 지원사업 | 풍력발전 공로자 시상 지원 | 1 | 10,120,040 |
| 공익활동 지원 배분조사 및 진행비 | 사업조사, 전문가 자문, 현장조사 등의 조사 및 진행비 | | 35,237,760 |
| 소계 | | 139 | 1,173,531,313 |

* 2014년 이전 진행한 공익디자인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단체의 사업지연 및 예산이 남아 1,178,858원의 환급이 발생하였습니다.

변화의 시나리오 특별지원 - 인프라 지원사업
“이젠 매일 아침 컴퓨터를 때리지 않아요”

비영리민간단체의 재정은 늘 턱없이 부족해서 장비 하나 제대로 구입하기도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재단은 비영리민간단체에게 꼭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총 23개 단체들은 정해진 예산 안에서 가장 좋은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부지런히 발품을 팔고, 꼼꼼하게 가격 비교를 하고, 단단한 돌다리도 두드려가며 심사숙고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련된 물품들은 단체들의 일상과 활동에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산촌마을의 지속가능한 행복을 꿈꾸는 '생태산촌' 활동가들에게 카메라와 노트북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입니다. 마을 현장 곳곳을 사진으로 담고, 주민 분들의 이야기를 빠짐없이 기록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난한 살림 때문에 카메라 대신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노트북이 없어서 손으로 이야기를 받아 적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도 고물에 가까워서 아침마다 사정없이 기계에 폭력(?)을 가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곤 했습니다.

이제는 다릅니다. 때리지 않아도 단번에 켜지는 컴퓨터가 생겼고, 막 찍어도 화보처럼 찍히는 카메라가 생겼습니다. 노트북·컴퓨터 장만은 활동가 모두의 기쁨입니다. 그동안 노트 필기를 하느라 주민 분들과 눈도 제대로 못 맞췄는데, 이제는 어르신들 이야기에 더욱 집중하며 현장에서 곧바로 자료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집 걱정 없는 행복한 마을을 꿈꾸는 '나눔과 미래' 활동가들도 연초에 연달아 악재를 맞았습니다. 8년간 동고동락했던 노트북이 수리도 불가능할 만큼 망가지고, 멀쩡하던 빔 프로젝트가 갑자기 총천연색으로 변하더니, 일 년간 A/S 기사님과 연애를 즐기던 복사기마저 글씨 대신 까만색 그림들을 내놓기 시작한 겁니다. 모두 꼭 필요한 물건들이지만 너무 고가여서 구매 버튼 누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 때 운명적으로 아름다운재단의 인프라 지원사업과

인연이 이어졌고, 하나둘 새로운 친구들이 사무실에 동지를 틀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5층이라 모두 손수 옮겨야 했지만 그 누구도 불평 한 마디 없었습니다. 오히려 복사기를 설치한 날엔 갓난아이 어루만지듯 조심스러운 환영식이 열렸습니다. 나눔과 미래의 한 활동가는 “새 복사기는 존재만으로도 모두의 기쁨”이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인권단체 '새사회연대' 역시 새로운 장비 덕분에 20년 가까이 먼지를 뒤집어쓴 채 보관만 해오던 자료들을 디지털 파일로 변환했고, 최근 마을기업 북카페를 오픈한 '춘천여성회'는 도서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해 더 많은 아이들과 좋은 책을 나누고 있으며, 노동단체 '한국비정규노동센터'도 새 컴퓨터로 격월간지 <비정규노동> 책자를 더 멋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대안을 만들고 변화의 동력을 키워가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빈틈을 메우는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생태산촌' 등 23개 비영리민간단체는 2014 아름다운재단 '변화의 시나리오 특별지원-인프라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았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미래의 주인공으로 성장할 아동과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스스로 찾아가고, 이웃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창의적인 배움과 성장을 해나갈 수 있도록 '꿈꾸는 다음세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총 16개 사업을 통해 아동청소년 4747명, 119개 단체를 지원했습니다.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은 협력기관을 1개로 통합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례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특별배분 형태로 진행되던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육 지원사업도 정규사업으로 전환하고 중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1600명의 교복을 지원했습니다.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도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원 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스스로 우리 사회를 바꿔나가는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 모듬 10개 총 131명의 사회문화활동 프로젝트를 지원했습니다. 청소년 동아리 15팀 총 188명에게는 스스로 기획하고 떠나는 자발적 여행 프로젝트를 지원했습니다.

| 사업명 | 지원내용 | 개인 | 단체 | 배분금액(원) |
|-------------------------|---------------------------------|-------|-----|---------------|
| 청소년 자발적 여행활동 지원사업 | 청소년 스스로 기획하고 떠나는 여행프로젝트 지원 | 15 | | 131,926,744 |
|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 청소년 스스로 기획하고 실천하는 사회문화활동 프로젝트 | 10 | | 22,916,748 |
| 아동청소년 특기적성 지원사업 | 아동청소년의 특기적성과 재능개발을 위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 40 | | 138,257,839 |
| 아동청소년 문화체험활동 지원사업 | 아동청소년의 문화체험활동 지원 | 50 | | 140,187,600 |
| 아동청소년 소원 이루기 지원사업 | 문신제거가 필요한 청소년 문신제거 시술 연속지원 | 9 | | 28,000,470 |
|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 저소득 고등학생 전학년 교육비 지원 | 180 | | 389,155,096 |
| 성적우수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 저소득 성적우수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 8 | | 21,471,400 |
| 성적우수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 저소득 성적우수 대학생 교육비 지원 | 3 | | 19,179,000 |
| 성적우수 대학생 자기개발 프로젝트 지원사업 | 저소득 성적우수 대학생 자기개발 프로젝트 지원 | 1 | | 3,903,663 |
|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사업 | 저소득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 1,600 | | 364,269,110 |
| 아동양육시설 퇴소거주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 아동양육시설 퇴소 및 거주 대학생 교육비 지원 | 74 | | 203,737,489 |
| 대학생 단거여학연수 지원사업 | 아동양육시설 퇴소 및 거주 대학생 단거여학연수 지원 | 5 | 1 | 31,348,041 |
| 하라기금 아동복지시설 지정기탁 사업 |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 2 | | 6,000,000 |
| 청소년진로탐색지원사업 | 청소년과 함께 진로교육 로드맵 만들기 지원 | 1,452 | | 101,350,415 |
| 서장석 리더십 프로그램 지원사업 | 경기고등학교 경기창의인재아카데미 및 상설동아리 활동 지원 | 1 | | 25,100,000 |
| 마이크로소프트 청년IT지원 지정기탁사업 | 청년 IT취업교육 지원 | 1,415 | | 93,207,600 |
| 아동청소년 지원 배분조사 및 진행비 | 사업조사, 전문가 자문, 현장 조사 등의 조사 및 진행 | | | 1,734,758 |
| 소계 | | 4,747 | 119 | 1,721,745,973 |

청소년자발적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 은개비

동화책의 재발견, 일곱 소녀의 무지갯빛 성평등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성차별이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여고생 현조는 쇼트커트를 했다는 이유로 주위에서 따가운 시선을 받기 일쑤고, 활발한 성격의 유진이는 "남자도 아닌데 왜 까불거리느냐"는 타박을 자주 듣습니다. 어른들은 소리 높여 '성평등'을 외치지만, 청소년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은 '성차별'에 가까운 것이지요. '불평등한 현실을 내 손으로 바꿔보고 싶다!'

된 성문화를 바꿀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담았습니다. 은개비는 2014년 새로운 프로젝트에 돌입했습니다. 바로 성평등 동화책을 만드는 겁니다. 일 년에 몇 번 체험 부스를 운영하는 것만으론 부족하다는 생각에 여러 방법을 고민하다가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모두 볼 수 있도록 성평등을 주제로 동화책으로 만들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책이 출간되면 전국의 청소년성문화센터에 배포하고, 누구라도 손쉽게 볼 수 있도록 전자책(e-book)으로



청소년 모듬 '은개비'가 탄생한 배경입니다. 현조와 유진이를 비롯한 여고생 6명과 여중생 1명이 의기투합한 은개비는 성평등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청소년 실천모임입니다. 토요일마다 모여서 성평등에 관한 지식과 쟁점에 관해 의견을 나누고, 주기적으로 성평등 체험 부스를 열어 사람들에게 성차별 정보를 알리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리더로서 중심을 잡아주는 혜원이, 딱 부러지게 의견을 정리하는 정은이, 동화책의 스토리를 구성하는 라일라, 조곤조곤 의견을 제시하는 유진이, 동화책의 그림을 채색하는 현조, 서기는 물론 영상까지 도맡은 예림이, 아이디어뱅크인 막내 예원이. 평소에 저마다 톡톡 튀는 개성을 뽐내지만 동화책을 만들 때면 늘 화기애애 웃음이 넘쳐납니다.

은개비의 출발은 3년 전 중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클럽 활동의 일환으로 서울 광진청소년성문화센터에서 성문화 수업을 받게 됐는데, 그제야 비로소 자신들을 향한 불편한 시선이 '내 잘못'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잘못된 성의식 때문임을 깨닫고 모임을 만들게 된 겁니다. 2013년 첫 모임 당시엔 3명에 불과했지만 점차 생각을 같이 하는 친구들이 늘어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2015년 고3 수험생이 된 6명은 은개비를 떠납니다. 하지만 은개비의 성평등 정신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중학생 예원이가 제 친구들과 함께 굳게 은개비를 지켜줄 것이고, 손수 제작한 성평등 동화책이 그들을 대신해 전국 곳곳에서 이야기를 전해줄 테니까요.

은개비는 '은은한 바람개비'의 줄임말입니다. 우리 사회의 잘못된 성문화를 은은한 바람으로 바꿔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브라질 나비의 작은 날갯짓이 미국 텍사스에 태풍을 일으키는 나비효과처럼, 작은 실천들을 하나둘 이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 사회의 잘못

"남녀를 떠나 서로 배려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은)
"한순간에 바뀌진 않겠지만 성평등에 대한 어른들의 시선이 달라지길 소망해요." (예림)

더 나은 사회를 바라는 일곱 소녀들의 해맑은 꿈이 일곱 빛깔 무지개처럼 오래도록 은은하게 빛나길 바랍니다.

* 은개비는 2014 아름다운재단 '청소년자발적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았습니다.

사회적약자 지원
사회적돌봄



아름다운재단은 어르신,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한부모 여성가장, 이혼동이 등 사회적 약자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사회적돌봄'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총 13개 사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 5183명을 지원했습니다.

낙상에 취약한 어르신 190명에게 각 4종씩 총 760개의 낙상예방보조기구를 지원했고, 중증장애 아동 155명에게 맞춤형보조기구를 지원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여성가장 200명에게 건강검진과 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한부모 여성가장의 창업비용을 대출하는 마이크로크레딧 '희망가게' 사업을 통해 총 27개 가게가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희망가게는 2014년 평균 순수익이 월 249만원을 기록했고, 창업비용 상환율도 86%에 달했습니다.

2.5kg 또는 임신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이혼동이를 지원하는 '다숨이작은숨결살리기' 사업은 한 해 동안 225건의 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 사업명 | 지원내용 | 개인 | 단체 | 배분금액(원) |
|-----------------------------------|----------------------------------|-------|----|---------------|
| 홀로사는 어르신 생계비 지원사업 | 홀로 사는 어르신에게 생계비 지원 | 100 | | 122,193,053 |
| 홀로사는 어르신을 위한 국배달 지원사업 | 홀로 사는 어르신에게 동절기 따뜻한 국을 지원 | 3,936 | | 223,429,450 |
| 어르신 난방비 지원사업 | 홀로 사는 어르신에게 난방비 지원 | 182 | | 39,934,673 |
| 노인낙상예방 보조기구 지원사업 | 낙상 취약 노인에게 보행 및 욕실용 보조기구 지원 | 190 | | 189,037,762 |
| 장애아동청소년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사업 | 보조기구 필요 장애아동에게 기립 및 보행보조기구 맞춤 지원 | 155 | | 355,095,386 |
|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 한부모 근로 여성가장에게 건강검진 및 치료비 지원 | 200 | | 177,220,557 |
| 소년소녀가장 주거비 지원사업 | 실질적 소년소녀가장에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 | 115 | | 338,375,611 |
| 다숨이작은숨결살리기 | 이혼동이 입원 및 재활 치료비 지원, 사회인식개선 활동 | 225건 | | 679,857,562 |
| 다숨이작은숨결살리기 현물지원 | 이혼동이 가정 보육 현물 지원 | | | 6,730,979 |
| 희망가게 대여 | 한부모 여성가장 경제적 자립을 위한 창업 지원 대여 | 27 | | 989,000,000 |
| 희망가게 지원 | 한부모 여성가장 창업주 교육지원 및 사후관리 | | | 492,896,698 |
| 희망가게 현물지원 | 한부모 여성가장 창업주 소모품 현물지원 | | | 5,170,661 |
| 나눔천사를위한이창식기금 지원사업 | 희이창식 기부자 유자녀생계비 지원 | 1 | | 3,600,000 |
| 유니베라기금 한국회귀난치성질환연합회 지원사업 | 회귀난치성질환자 멘토링 파티 및 의료비 지원 | 1 | | 20,100,000 |
| 미연이수호천사기금 범죄피해자 및 피해가족에게 생계보조비 지원 | 범죄 피해자 및 피해가족에게 생계보조비 지원 | 12 | | 24,105,006 |
| 개미스폰서 |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난방텐트 지원 | 40 | | 1,633,000 |
| 개미스폰서 현물지원 |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난방텐트 현물 지원 | | | 1,065,600 |
| 사회적 약자 지원 배분조사 및 진행비 | 사업조사, 전문가 자문, 현장 조사 등의 조사 및 진행 | | | 211,166 |
| 소계 | | 5,183 | 1 | 3,669,657,164 |

* 2014년 이전 진행한 '저소득근로자차과료 지원사업'에서 지원받은 단체의 사업예산이 남아 3,023,231원의 환급이 발생하였습니다.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

“아이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김숙진(가명)님은 11년 전 이혼했습니다. 평범한 가정 주부로 살다가 갑자기 홀로 아이를 키우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 때문에 오랜 시간 일을 할 수 없었고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제대로 된 취업은 생각도 할 수 없었죠. 어쩔 수 없이 이런저런 부업을 전전했는데, 고된 일에 비해 벌이는 턱없이 적어서 늘 생계 걱정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얼마 후 동사무소의 소개로 아이가 다니는 보육원에 일자리를 얻었지만, 근무시간이 짧은 만큼 손에 쥐는 돈은 부족하기만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김숙진님은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는 대신 진통제로 견디는 날들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10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두 아이와 살고 있는 최영란(가명)님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한참을 헤맨 끝에 재활센터에서 봉제 기술을 익힌 다음에야 지금의 직장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쑥 커가는 아이들을 부양하기에는 월급봉투가 너무 가볍기만 합니다. 매일 열심히 일하는데 돈은 모이지 않는 고달픈 나날이 이어졌지요. 큰 돈이 들어가는 건강검진은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일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생계와 양육이라는 무거운 짐을 홀로 짊어지고 살아온 두 사람에게 아름다운재단의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은 단비와도 같은 선물입니다. 지금껏 자신의 건강을 돌볼 여유도 없이 아이들을 위해 열

심히 달리기만 했던 여성가장들에게 무료 건강검진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애써 '괜찮겠지' 마음을 다잡으면서도 늘 한구석에서는 '갑자기 큰 병에 걸리면 우리 아이들은 어쩌나' 하는 걱정과 남몰래 고민이 깊었던 최영란님은 건강검진을 받고 오랜만에 활짝 웃음꽃을 지어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다른 누군가는 배우자와 함께 받기도 하겠지만, 저희처럼 혼자 아이를 키우는 여성가장들은 그럴 기회가 없거든요. 대부분 비정규직인데다 한 달 월급을 검진 비용으로 쓸 만큼 대단한 용기가 없어요. 다행히 좋은 기회로 건강검진을 받게 돼서 너무 안심이에요. 아이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싶어요.”

아름다운재단은 앞으로도 더 많은 여성가장들이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더 나은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 김숙진님과 최영란님을 비롯한 200명의 한부모 여성가장은 2014 아름다운재단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았습니다.

저소득근로자치과치료 지원사업

고단한 인생과 함께 무너졌던 치아, 이제는 웃음꽃이 활짝!

치아건강은 오복 중 하나라고 하지요? 영구치는 다른 기관과 달리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또 이와 잇몸에 문제가 있으면 음식을 제대로 씹거나 삼킬 수 없어서 소화기관은 물론 신체건강에 영향을 미치지요. 그러나 누구에게나 치과는 공포의 대상이에요. 치료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병원비! 워낙 목돈이 들다보니 치과 치료를 위한 사보험도 많이 나왔습니다. 치료비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반증이겠지요?

게다가 한국의 의료 현실에서는 치아 손상이 심할수록 보험치료보다는 비보험치료를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 저소득층은 경제적 부담 때문에 치과 치료를 받지 못하고, 구강상태가 나빠져 결국 치료비가 더 커지는 악순환이 생기지요.

그래서 아름다운재단은 지난 2011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약 3년간 스마일재단과 함께 저소득층 근로자 130명에게 최대 300만원의 치과치료비를 지원했습니다. 치료를 받은 뒤 지원자들의 96%는 “치과 치료가 근로 및 사회생활에 도움이 됐다”고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가장 만족스러운 점으로는 “자신감 상승(33.4%)”과 “자유로운 음식 섭취(18.5%)”, “경제부담 해결(18.5%)”이 꼽혔습니다.

이 설문 내용만 봐도, 그 동안 얼마나 불편하고 고통스러웠을지 짐작이 되지요? 실제 지원자 사례를 들여다보니 그 아픔이 더욱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김수정(가명, 47세) 님은 스물한 살 어린 나이에 엄마가 되어 홀로 갓난아이를 키웠습니다. 하루에도 열두 번 나쁜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지만 어린 아들을 위해 어금니를 꼭 깨물었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어엿한 청년으로 잘 자라주었지만 25년 모진 세월 동안 입안의 통증이 점점 삶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통증 때문에 음식을 제대로 씹을 수 없었고 약취 때문에 사람들과 가까이 이야기를 나눌 수도 없었습니다. 남들 앞에서 치아를 드러내고 웃는 법도 없었습니다. 문 밖을 나서는 일조차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참다못해 찾아간 치과에서는 발치와 신경치료 등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치료비는 무려 수백만원. 힘없이 병원 문을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기적처럼 이어진 도움의 손길. 2014년 아름다운재단 ‘저소득근로자치과치료 지원사업’에 선정된 겁니다.

그토록 바라던 치과치료가 시작됐고, 6개월의 대장정을 마치자 김수정 님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활짝 치아를 드러내며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갑니다. 만개한 봄꽃처럼 얼굴에 웃음꽃이 넘실댁니다. 새 꿈도 생겼습니다. 1종 대형 면허를 따서 마을버스나 유치원 버스를 운전하는 겁니다. 온 동네를 누비며 사람들을 만나고 싶거든요.

이렇듯 아름다운재단 ‘저소득근로자치과치료 지원사업’은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꿈꾸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 치과치료를 받은 130명 지원자들의 삶에 웃음꽃이 활짝 피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 아름다운재단은 지난 2011~2013년 동안 총 3억336만5140원을 ‘저소득근로자치과치료 지원사업’에 사용했습니다.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10주년

이른둥이와 함께 뚜벅뚜벅 성장했습니다

2014년은 아름다운재단의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사업이 10주년을 맞이한 해입니다.

2004년 시작된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는 2.5kg 미만 또는 임신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이른둥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초기입원비부터 재활치료비까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0년간 아름다운재단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저소득 가정 위주로 초기입원치료비만 지원했지만, 점차 재입원과 재활치료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입원치료비 805건과 재활치료비 1103건 등 총 1908건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정부 지원이 미치지 못하는 다문화 및 외국인 가정의 이른둥이에게도 총 175건의 지원을 진행했습니다.

이른둥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도 펼쳤습니다. 2006년에는 부정적인 인식이 강한 ‘미숙아’라는 표현을 바꾸기 위해 국립국어원과 함께 공모전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이른둥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습니다. 보다 앞서거나 빠르다는 뜻의 ‘이르디’에 아이를 뜻하는 접미사 ‘둥이’가 붙어서 이 세상이 궁금해 빨리 세상에 태어난 아기 ‘이른둥이’가 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른둥이 부모들의 양육을 돕기 위해 전문 웹사이트(babydasom.org)를 만들고 전문 의료진이 함께하는 전문 Q&A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된 치료와 재활로 고통받는 이른둥이와 가족들에게는 치료비 못지않게 정서적 지원도 중요합니다.

아름다운재단은 2005년부터 겨울철 바깥활동이 어려운 이른둥이 가정을 방문해 파티를 열어주는 ‘다솜이 희망산타’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원봉사자 1517명이 참여해 이른둥이 가정 1125곳에 선물을 전달하고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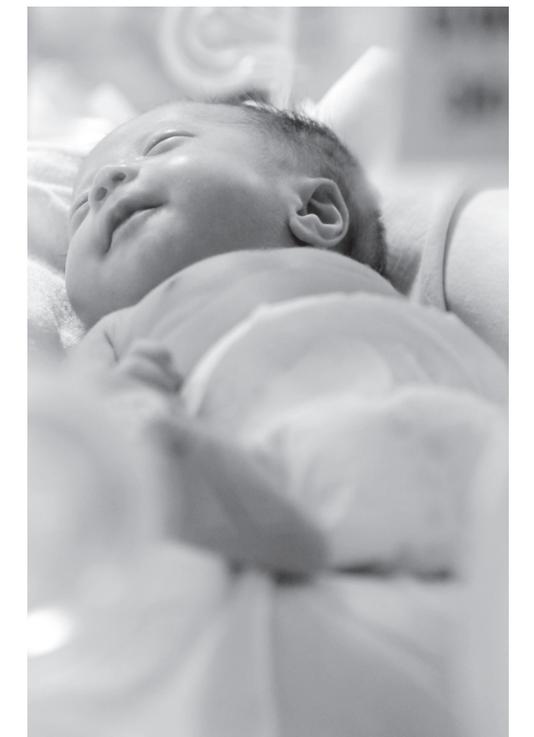
2009년부터는 총 5회 이른둥이 가족캠프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캠프에는 133가족이 참여했습니다.

이같은 아름다운재단과 각계각층의 노력으로 정부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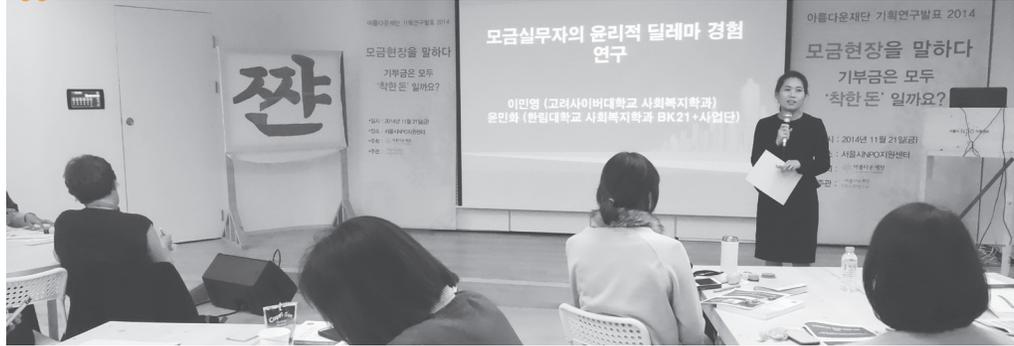
책도 개선되었습니다. 보건소의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기준은 ‘최저생계비 200% 미만’에서 ‘도시근로자 가구 월 평균 소득 150% 미만’으로 확대됐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그 동안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 이른둥이는 매년 늘어나지만 아기와 가족들을 위한 지원은 아직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가치를 실천에 옮기고 확산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아름다운재단은 교보생명과 함께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기금’을 토대로 이른둥이 입원치료비 및 재활치료비를 지원하는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부문화 확산
연구교육 · 캠페인



아름다운재단은 국내외 기부문화에 대한 연구와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제14회 국제기부문화심포지엄 기빙코리아'를 개최해 한국의 개인기부지수와 유산기부 활성화, 상호부조 행동분석 등 다양한 쟁점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기획연구와 발표를 통해 비영리조직의 모금활동과 모금 실무자의 윤리적 딜레마, 고액 기부자들을 위한 기부 제도 등 한국형 기부문화 확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국내 최초로 기부문화를 주제로 한 석박사 논문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했습니다. 2014년에는 4편의 논문을 선정해 총 400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했습니다.

교육 사업으로 기부에 관한 국내외 도서 500여권을 서울도서관에 기증해 '나눔문화컬렉션'을 개설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장서 수를 확대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나눔도서 추천과 도서관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손해배상 가입료로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는 근로자와 가족들에게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고 관련 법률을 개선하기 위한 <노란봉투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기록과 유가족 치유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기억0416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 사업명 | 지원내용 | 개인 | 단체 | 배분금액(원) |
|-----------------------------|--|------------------|------------------|---------------|
| 기빙코리아 | 개인기부지수 발표 및 기부문화 심포지엄 개최 | 행사1회, 134명 참석 | | 61,116,847 |
| 기획연구 |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 및 발표 | 연구 10건 | 행사 1회, 65명 참석 | 39,395,685 |
| 기부문화연구소 | 대한민국 기부문화 확산에 필요한 조사 및 심층연구 진행 | | | 3,946,621 |
| 기부문화총서 | 비영리 부문 경영·모금 및 운영전략에 관한 전문 서적 발간 | | | 153,990 |
| 기부문화도서관 | 국내 최초의 기부문화 전문 도서관 운영 | | | 5,286,230 |
| 나눔교육 | 나눔의 미래세대 양성 프로그램 개발 | | | 992,994 |
| 노란봉투 캠페인 | 손해배상 판결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이들과 가족의 생계 및 의료비 긴급지원과 법률 개선 활동 지원 | 329 | | 1,465,293,816 |
| 기억0416 캠페인 | 416 세월호 침몰사고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및 참사 기록작업, 지역공동체 회복사업 지원 | 3 | | 781,422,544 |
| 세월호 참사 유가족 SOS 긴급지원 | 416 세월호 침몰사고 유가족 식사 및 가재도구 지원 | | | 1,942,900 |
| 나는아이들의불평등한식판에반대합니다 캠페인 | 생활시설 아동들의 급식지원 및 정책개선 활동 | 2,363 | | 59,383,652 |
| 열여덟 어른의 자립정착꿈 캠페인 | 홀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시설퇴소아동의 자립 정착 지원 | 60 | | 416,993,400 |
| 기부문화확산을 위한 컨텐츠 발굴 및 안내활동 | 나눔이 필요한 현장 소식 취재 및 배포, 홍보 활동 | | | 71,449,936 |
| 기부문화확산을 위한 컨텐츠 발굴 및 안내활동 현물 | 나눔이 필요한 현장 소식 취재 및 배포, 홍보 활동 | | | 2,589,658 |
| 소계 | | 2,951 | 3 | 2,909,968,273 |

* 2014년 이전 진행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지원에서 2,960,000원의 환급이 발생하였습니다.

'모금 실무자의 윤리적 딜레마 경험에 관한 연구'
'옳은 것'과 '옳은 것' 사이의 고민

2014년 11월 21일 아름다운재단 기부문화연구소는 기부문화에 관한 기획연구 발표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그 중 가장 언론의 주목을 받은 것은 '모금 실무자의 윤리적 딜레마 경험에 관한 연구'였습니다.

모금 활동은 투명성과 윤리성이 기본 원칙이지만, 실제 모금 현장에서는 목표 모금액 달성에 대한 압력과 경험 부족 등으로 인해 다양한 윤리적 갈등이 벌어집니다.

이민영 고려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윤민화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BK21+ 연구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이 연구는 수많은 모금 실무자들이 모금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윤리적 갈등 상황을 현실적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부금 집행 과정에 관한 딜레마입니다. 기부자가 원하는 목적에 맞게 기부금을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장에서는 "결과적으로 공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면 융통성 있게 집행할 수 있지 않느냐"며 모금 실적이 낮은 분야에 기부금을 분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모금 지원자의 프라이버시에 관한 딜레마입니다. 모금의 목적이 지원자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것인데 반대로 지원자를 '피해자'로 표현하거나 그들의 '고통과 배고픔'을 과도하게 노출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모금 실적을 높이기 위해 지원자의 얼굴이나 사는 곳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셋째, 기부자 제한에 관한 딜레마입니다. 대체로 사행성 산업이나 담배 및 주류회사 등에게는 기부금을 받지 않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모금 실무자가 기업의 비도덕성을 판단할 자격이 있느냐"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거액의 기부금을 받을 경우 더 많은 나눔을 실천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기부자의 '집사'가 되어 그들의 요청을 수행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모금 현장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윤리적 딜레마는 수학 문제처럼 정해진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칼로

무 자르듯 깔끔하게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의 표현처럼 이러한 갈등은 '옳은 것'과 '옳은 것'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과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재단은 '더 옳은 것'을 위해 더 치열하게 고민하려 합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공동체의 힘으로 해결하는 공익의 가치를 실현하며,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이 같은 노력을 통해 '행동하는 시민 기부문화의 확산자'로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해나갈 것입니다.





아름다운재단 2014 새 기금

김윤심 나눔교육기금



기금 조성일 2014년 5월 **지원 사업** 나눔교육 지원
기금 조성자 ㈜주피터필름 **기금 분류** 기업기금

영화제작사 ㈜주피터필름(대표이사 주필호)이 영화 <관상>의 수익금 절반을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해 '김윤심나눔교육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주필호 대표는 평소 "비우는 인생을 살라"는 가르침을 주신 어머니의 뜻을 기리기 위해 어머니 존함을 기금명으로 정했습니다. 주필호 대표는 "앞으로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될 미래 세대들이 나눔교육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한 '즐거운 책임'을 배웠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신용순이기속 추모기금



기금 조성일 2014년 7월 **지원 사업** 노인낙상 보조기구 지원사업, 장애아동청소년 보조기구 지원사업

기금 조성자 신대용, 신지안 **기금 분류** 추모기금 **출연금** 4억원
'신용순이기속추모기금'은 1996년 작고하신 아버지 신용순님과 2014년 1월 작고하신 어머니 이기숙님을 추모하며 조성된 기금입니다. 살아 생전 기부 의지를 밝히신 부모님의 뜻을 기리기 위하여 자식들이 대신 실천에 옮기게 되었습니다. 병상에 오래 계셨던 어머니를 돌보면서 생계가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낙상 보조기구 지원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중증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위한 '장애아동청소년 보조기구 지원사업'도 함께 지원합니다.

케토톱 홀로사는노인 지원기금



기금 조성일 2014년 9월 **지원 사업** 어르신생계비 지원사업
기금 조성자 ㈜한독 **기금 분류** 기업기금 **출연금** 3천만원

'케토톱홀로사는노인지원기금'은 제약회사 ㈜한독이 케토톱 상품의 판매 수익금 일부를 출연해 조성한 기금입니다. 태평양제약으로부터 케토톱 제약사업부문을 인수한 ㈜한독은 기존 '태평양제약홀로사는노인지원기금'이 종료될 상황에 처하자 새로운 기금을 출연해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초기 출연금으로 3천만원을 기부했고 매년 기부를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뉴키즈 유아인기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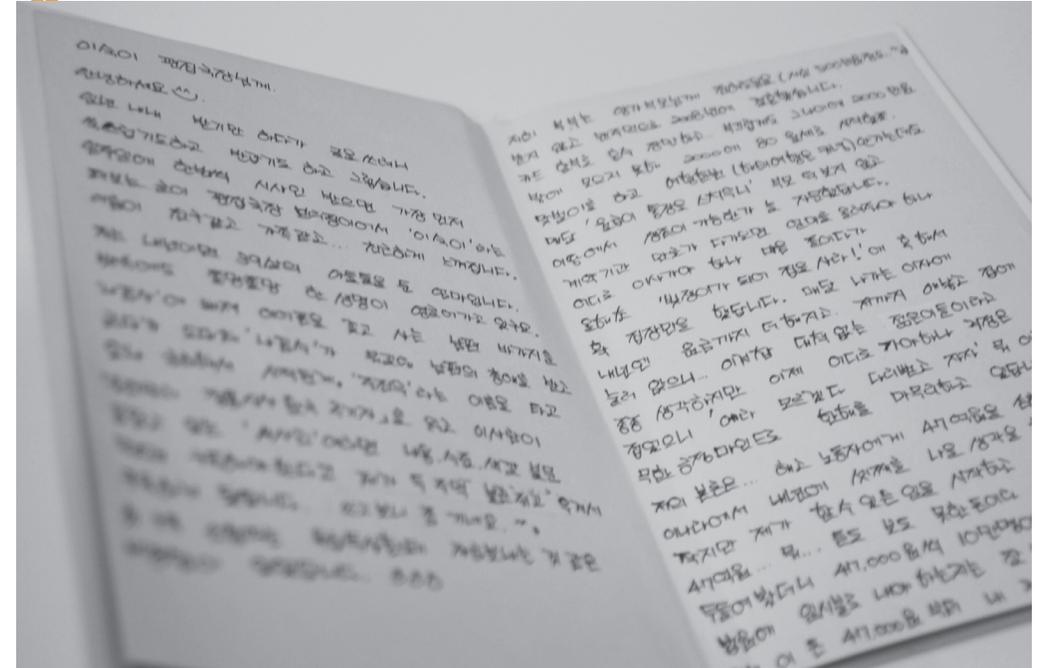


기금 조성일 2014년 12월 **지원 사업** 아동청소년문화체험 지원사업, 아동양육시설퇴소거주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기금 조성자 유아인, 주식회사 노앙 **기금 분류** 일반기금 **출연금** 1억원

2013년 아름다운재단의 <나는 아이들의 불평등한 식판에 반대합니다 캠페인>에 참여했던 배우 유아인님이 2014년에는 '뉴키즈유아인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출연금 1억원은 유아인님이 패션브랜드 노앙(NOHANT)과 콜라보레이션으로 제작한 티셔츠의 판매 수익금으로 마련됐습니다. 이 기금은 소외된 아동들의 자발적 문화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한 대학생들의 학자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노란봉투 캠페인>



시작은 평범한 한 주부의 편지였습니다. 배춘환(39)님이 주간지 <시사IN>을 통해 47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가압류 판결을 받은 근로자들의 소식을 접하고, 손해배상금의 10만분의 1인 4만7천원을 기부한 것입니다. 그는 비록 적은 돈이지만 뜻을 같이 하는 9만9999명이 함께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마음에 공감한 아름다운재단은 <시사IN>과 함께 2014년 2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손해 가압류로 위기에 처한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긴급 생계비·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노란봉투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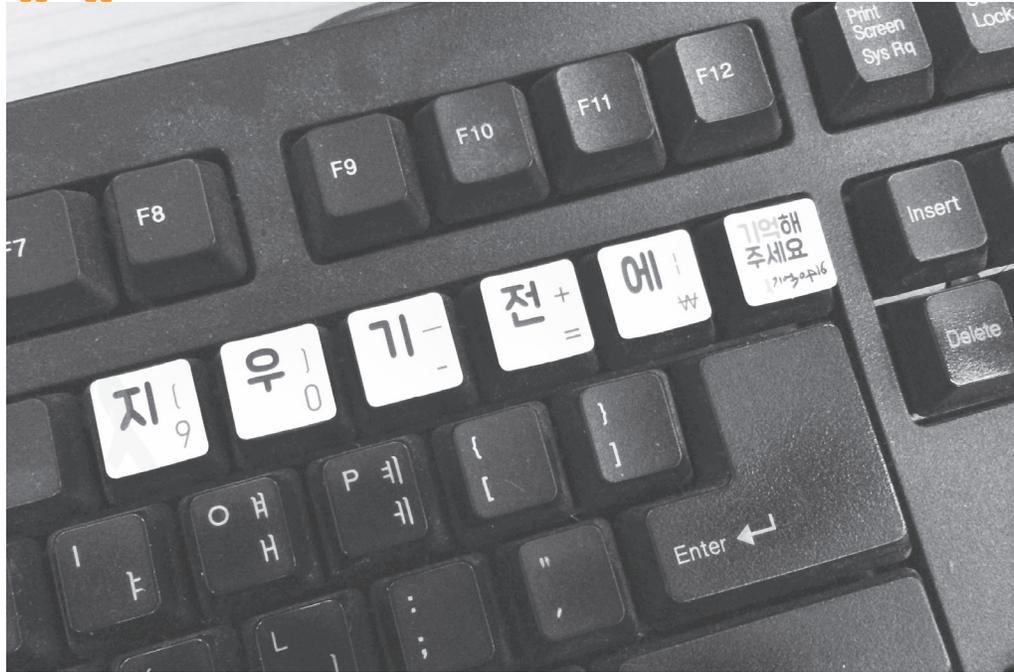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컸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기부에 동참하면서 모금 15일 만에 목표액인 4억7천만원을 달성했습니다. 가수 이효리님 등 유명인들도 기부에 동참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캠페인이 진행된 4개월 동안 4만7546명이 기부에 참여해 총 14억6869만4745원이 모금됐습니다. 구순의 촌로부터 7살 아이까지, 교도소부터 멀리 해외까지 우리 사회 곳곳의 사람들이 용돈을 아끼고 야근수당을 모아 4만7천원을 내어놓았습니다.

또한 <노란봉투 캠페인>의 열기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손해 가압류 문제도 다시 부각됐습니다.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결국 법률 개선 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편지에서 시작된 4만7천원의 기적입니다.



<기억0416 캠페인>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인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수백 명의 생명들을 위해 아름다운재단은 세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잊지 않겠다는 약속, 곁에 있겠다는 약속, 오래 지켜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를 위해 주간지 <한겨레21>과 함께 2014년 6월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공동으로 <기억0416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기억0416 캠페인>은 이 세 가지 약속을 실천하기 위한 캠페인입니다. 세월호 참사 기록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사회복지사의 유가족 방문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의 치유 인프라를 구축해서 '곁에 있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안산지역 단체에 장기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오래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아름다운재단은 145일 동안 모금 캠페인을 벌였고, 그 결과 1640명이 기부에 동참해 총 2억7136만2182원의 기부금이 모였습니다. 반 학생들과 동호회원들이 함께 뜻을 모으고 <기억0416 캠페인>에 기부했습니다. 한 기부자님은 10년 동안 적금을 부어 만든 1억원의 1%(100만원)을 보내왔습니다.

모금은 끝났지만 세월호 참사의 아픔은 끝나지 않았기에 <기억0416 캠페인>의 지원사업 역시 아직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아름다운재단은 세 가지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며 세월호 가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주기나눔



아름다운재단은 창립 초기부터 '생애주기나눔'을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생애주기나눔은 결혼식과 돌잔치처럼 생애 가장 소중한 순간에 특별한 나눔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그리고 내 아이와 함께 해서 더욱 기쁜 나눔입니다.

'결혼기념나눔'은 두 사람이 평생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겠다고 약속하는 결혼식 날, 하객들이 베풀어주신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기부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부부의 사랑을 두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위한 더 큰 사랑으로 만드는 기부입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18쌍의 부부가 사랑의 결실로 총 560만원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돌기나눔'은 자녀가 세상에 태어나 처음 맞는 생일날, 이 세상을 밝게 빛내줄 아이로 성장하길 바라는 소망을 담아 아빠와 엄마가 건네는 첫 기부 선물입니다. 아이에게는 부모의 사랑을, 아이가 살아갈 세상에는 희망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돌기나눔은 아이 이름으로 기부가 되어 그 의미가 더욱 특별합니다.

2014년 한 해 동안 총 137명의 한 살배기 아이들이 약 5천만원의 기부금을 아름다운재단에 보내왔습니다.



아름다운재단 '1호기금 출연자' 김군자 할머니

“돈 쓰는 가치를 알아야”...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르침



아름다운재단 '1호 기금 출연자'인 김군자(89) 할머니가 2014년 12월 19일 국민추천포상으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상하셨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국민추천포상'은 우리 주변에서 희망과 행복을 전한 숨은 공로자들을 국민들에게 직접 추천받아 포상하는 제도입니다. 김군자 할머니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기부를 실천해 사회에 귀감이 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김군자 할머니는 2000년 8월 아름다운재단이 설립되고 가장 먼저 소중한 기부를 해주신 분입니다.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기부'라는 것이 아직은 낯설게만 여겨지던 때에는, 김군자 할머니는 자신의 장례비 500만원만 남기고 평생 모은 돈 5천만원을 선뜻 기부해주셨습니다.

이 소식은 당시 사회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할머니의 숨겨진 사연 때문입니다.

강원도 평창에서 태어난 김군자 할머니는 13살에 부모님을 잃고 17살이던 1942년 일본군에게 끌려갔습니다. 중국에서 위안부 생활을 하며 모진 시련을 겪은 할머니는 3년 후 해방이 되고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반겨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때부터 할머니는

온갖 험한 일들을 하며 홀로 가난한 살림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은 전 재산을 선뜻 내어주신 겁니다. 자신 처럼 부모 없이 자라는 아이들이 돈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며 말합니다.

김군자 할머니는 이후 2006년에도 추가로 5천만원을 기부해주셨습니다. 정부에서 받은 지원금을 모은 돈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사연을 접한 시민들은 뜻을 함께 하고 싶다며 기부 릴레이를 이어갔습니다.

이렇게 모인 '김군자할머니기금'의 누적액은 현재 8억원에 이르렀고,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한 대학생들의 소중한 학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재단은 김군자 할머니의 뜻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13년 5월 재단 건물 1층에 김군자 할머니 기념부조를 설치했습니다. 제막식 참석을 위해 아름다운재단을 방문하신 할머니는 값진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신기하게도 가진 걸 놓아버리니까 마음도 넉넉해지고 손자들도 생기더라고. 돈만 많아서는 안 돼. 돈을 쓰는 가치를 알아야 하는 거야. 너무 늦게 깨달은 거지만 죽는 날까지 나누면서 살고 싶어. 낭비하지 말고 아껴서 다른 사람 도와주면서 이성을 훌훌 떠나고 싶어.”

김군자 할머니, 계속 건강을 지키셔서 우리 곁에 오래도록 계셔주세요.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 김군자 할머니가 평생 모은 돈을 기부해 개설된 '김군자할머니기금'은 아동양육시설퇴소거주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혼기념나눔' 동참한 백정연·이승일 부부

아주 평범한 커플의 아주 특별한 나눔

이승일(43)님은 한국척수장애인협회에서 일하고 있고, 백정연(35)님은 같은 건물에 있는 장애인개발원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층에서 일하던 두 사람은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게 되면서 첫 인사를 나눴고, 이승일님은 그만 백정연님의 웃는 모습에 반했습니다. 일부러 서류도 직접 가져다주고 온갖 핑계를 만들어서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별다른 소득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퇴근길에 마주친 두 사람은 가볍게 맥주 한 잔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술자리가 무려 6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백정연님도 이승일님에게 반했기 때문입니다.

백정연님이 말하는 이승일님의 매력은 자신감입니다. 이승일님은 10년 전부터 척수장애로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자신의 장애에 대해 농담을 할 정도로 밝고 긍정적입니다. 백정연님은 '이 사람이라면 평생 남편으로 존경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고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결실을 맺기까지 험난한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백정연님의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한 것이지요. 다행히 어머니는 이승일님을 직접 만나보고 두 사람의 사랑을 이해해주셨지만, 아버지는 쉬이 마음을 내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열렬한 응원 덕분에 결국에는 결혼을 허락하셨지만 그 과정은 참으로 아픈 시간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헤어질 위기까지 갔으니깐요. 하지만 두 사람은 어려움을 잘 이겨냈고, 드디어 2014년 7월 5일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식은 특별한 나눔이 함께 했습니다. 축의금 일부를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한 겁니다. 두 사람의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함께 나누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직접 만든 청첩장에 '축의금 1%는 아름다운재단을 통하여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쓰여집니다'라고 적었는데 지인들의 반응이 뜨거웠다고 합니다. '결혼기념나눔'은 백정연님의 적극적인 의지로 이뤄졌습니다.

“결혼 전에 부모님 반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순간에 부모님에게 서로를 배려하고 이 웃과 나누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함께 해주신 고객 분들에게도 나눔의 기쁨을 전하고 싶었고요.”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의 사랑이 별다른 것 없다고 말합니다. '장애인-비장애인'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남녀'라고 말이지요. 너무 다른 시선과 기대로 바라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길 바라고 있지요.

이 바람이 이루어져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랑이 좀 더 흔하고 쉬운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이 지금처럼 변치 않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예쁜 아기와 함께 '돌기넘기부'로 두 사람을 다시 만날 그 날, 손꼽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백정연·이승일 부부는 2014 아름다운재단의 '결혼기념나눔'에 참여했습니다.

'김윤심나눔교육기금' 출연한 주필호 주피터필름 대표

'비움의 철학'이 선물해준 나눔의 행복

2012년 늦가을 어느 날, 낯선 얼굴의 두 사람이 연락도 없이 아름다운재단을 방문했습니다. 사무실이 근처인데 지나가다 들렀다고 했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기부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기부금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 되느냐" 등 많은 질문을 쏟아내더군요. 그리고 얼마 후 그가 다시 재단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질문 대신 결론을 들고서 말합니다.

"내년에 영화 한편을 개봉하는데 수익금 절반을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그는 바로 영화 <관상>을 제작한 주피터필름의 주필호 대표였습니다.

영화제작자가 아직 개봉도 하지 않은 영화의 수익금을 기부하겠다고 나선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기부금이 얼마가 될지 전혀 가늠이 안 되는 상황이었지요. 결국 영화 <관상>은 무려 914만 명의 관객을 끌어 모으며 한국 영화 역대 흥행 순위 14위(2015년 4월 기준)를 기록했고, 주필호 대표는 약속대로 수익금 절반을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했습니다.

하지만 영화사의 첫 흥행작인데 수익금을 절반이나 내놓는 것이 과연 쉬웠을까요? 혹시 아픈 배를 움켜쥐고 억지로 기부한 건 아닐까요? 하지만 이런 의문들에 주필호 대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배가 아프기는커녕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편안해졌다고 말합니다.

"지금이 저의 황금기라 생각합니다. 현재도 <관상>에 이

은 역학시리즈 삼부작인 <궁합>, <명당>을 진행 중에 있고, <관상 현대판>, <순정> 등 많은 작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건 기부를 통해 저를 비웠기 때문인 것 같아요. 빈 자리가 생기니까 그곳에 좋은 기운이 들어올 수 있었던 거죠. 요즘 들어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 때마다 '내가 참 좋은 선택을 했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필호 대표의 '비움의 철학'은 어머니의 영향이 큼니다. 평소 "비우고 베푸는 인생을 살라"는 가르침을 주신 어머니 덕분에 그는 10년 전부터 나눔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소위 '대박' 조짐이 보이는 영화 <관상>을 제작하면서 '수익금 절반 기부'라는 통큰 결심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기부금도 어머니의 성함을 붙여서 '김윤심나눔교육기금'으로 정했습니다. 이 기금은 미래 세대들을 위한 나눔교육 지원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필호 대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 제작하는 모든 영화를 통한 수익금 기부를 실천하겠다고 전해왔습니다. 큰 기부금을 전달해주었지만 아직도 지하철을 이용하고, '책이 재산'이라 생각해 많은 장서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그 역시도 혼자만 갖고 있기보다는 공유하는 게 좋을 듯해 고향 도서관에 모두 기증했다는 주필호 대표! 영화에 대한 열정만큼이나 실천하는 건강한 기부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제작하는 영화 모두 '대박'나시길 아름다운재단이 진심으로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 주필호 주피터필름 대표가 영화 <관상> 수익금 절반 기부를 통해 조성한 '김윤심나눔교육기금'은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나눔교육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기금' 동참한 송한별 선생님과 6학년 1반 어린이들 생일 기부로 이룬둥이들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다



인천 서림초등학교 6학년 1반 학생들은 2014년 한 해 동안 특별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매달 생일을 맞은 친구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1만원씩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한 겁니다. 첫 기부의 주인공은 2014년 3월 생일을 맞은 지원이, 해린이, 재홍이, 형주입니다. 이들 네 명은 고사리 손으로 모은 4만원을 이룬둥이를 위한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에 기부했습니다.

기부를 처음 해본 지원이는 마음이 뿌듯합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고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룬둥이에 관한 자료를 봤는데, 태어나자마자 시련을 겪는다는 게 너무 마음 아팠어요. 기부는 처음인데 친구들과 함께 응원할 수 있어서 좋아요."

사촌동생이 이룬둥이로 태어나 걱정이 많았던 형주도 같은 마음입니다. 무사히 건강을 되찾은 사촌동생처럼 기부로 인연을 맺은 아기가 하루 빨리 건강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서림초 학생들의 특별한 나눔은 송한별 선생님의 특별한 제안으로 시작됐습니다. 학기 초 학급회의에서 '일 년에 한번 자신의 생일날 기부를 해보자'고 토론 주제를 제안한 겁니다. 평소 기부를 접해볼 기회가 없던 학생들은 다양한 자료를 읽고 기부 방법에 대해 자유롭게 생각을 나눴습니다. 그 결과 매달 생일을 맞은 사람이 1만원씩 기부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걸코 쉬운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27명 학생들이 모두 찬성한 건 아니었거든요. 기부에 부정적인 아이들도 있

었고, 꼭 돈으로 기부해야 하느냐고 반문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때마다 송한별 선생님은 아이들이 기부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했고, 혹시 자신의 기부 제안을 강요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자율적인 토론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것도 괜찮다, 나눔이나 기부가 꼭 돈으로만 하는 건 아니다, 기부를 하다가 중간에 사정이 생기거나 생각이 바뀌면 얼마든지 그만둬도 괜찮다, 중요한 건 자유롭고 자율적인 참여다...

송한별 선생님은 아이들이 스스로의 판단으로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 전원 찬성으로 생일기부를 결정하게 된 겁니다.

기부 방법도 아이들 스스로 결정했는데, 기부금은 각자 일주일에 500원씩 모아 마련하기로 했고 후원하는 대상도 매달 투표로 정했습니다. 선생님은 제안만 했을 뿐, 생일 기부는 온전히 아이들의 뜻으로 이뤄진 것이지요.

자신의 생일날 누군가를 돕는 기부자가 되는 이 절묘한 경험은 아이들에게 '생명'과 '이웃'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기부를 통해 나와 다른 삶을 이해하게 되고, 다른 이의 아픔을 나누는 소중한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송한별 선생님은 이런 경험이 아이들에게 더욱 행복한 삶을 안겨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매일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 송한별 선생님과 인천 서림초등학교 6학년 1반 학생들은 생일기부를 통해 다솜이작은숨결살리기 지원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세피양행복나눔기금' 출연한 세피양

많이 나누고 더 크게 성장하는 착한 기업

최근 연구에 따르면 사회공헌에 적극적인 기업은 재무성과도 훨씬 높다고 합니다. 기업 문화에 자부심을 느낀 직원들은 업무에 더욱 몰입하게 되고, 이것이 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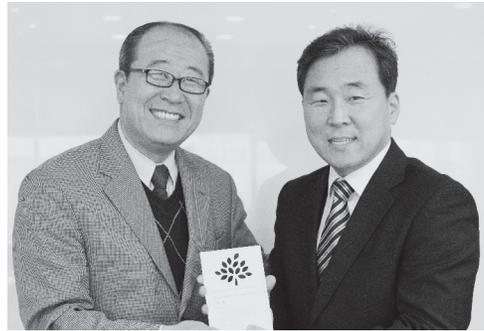
유아용품 전문기업인 세피양도 나눔과 함께 성장한 착한 기업입니다. 세피양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05년부터 아름다운재단에 '세피양행복나눔기금'을 조성하여 장애 아동청소년들에게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0년에는 유모차 브랜드 '맥클라렌'을 판매할 때마다 1천원씩 적립해서 총 4500만원을 기부했고, 2011년에는 베이비페어 기간 동안 '행복나눔바자' 기부 이벤트를 열어 유모차 판매 수익금 5천만원을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했습니다. 2013년에 열린 맘앤베이비엑스포에서는 홍보 부스 지원을 통해 아름다운재단의 '생애주기 나눔' 캠페인을 공동으로 진행했습니다. 정말 틈틈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니, 그런 기회를 직접 만들어가면서 열심히 나눔을 실천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부를 열심히 하면 회사가 어려워질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세피양은 설립 이후 지금까지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2014년 하반기에 처음으로 직원이 100명을 넘어섰고, 지역 매장도 점차 그 숫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많이 나눌수록 더 크게 성장하는 착한 기업의 공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10년지기 나눔친구 아름다운재단은 세피양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2015년 4월 감사패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세피양의 사회공헌 활동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정운갑 경영지원부문 이사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기부 활동을 물었지요. 그랬더니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세피양이 엄마와 아이들을 위한 기업이다 보니까 관련 단체에 유모차와 카시트를 기증하는 사례가 많아요. 그분들이 저희 제품을 잘 사용하고 계시다는 이야기들을 때마다 너무 뿌듯해요. 특히 아름다운재단을 통해



10년 넘게 중증장애를 가진 아이들에게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원받는 아이들이 늘어가갈 때마다 회사가 성장하는 것 이상으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회사를 더 크게 키워나가겠습니다."

기부를 더 많이 하기 위해 회사를 더 크게 키우겠다니 뭔가 앞뒤가 바뀐 듯도 합니다만, 그만큼 세피양의 나눔 철학이 단단하다는 반증일 겁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드는 제품이 엉망일 리 없겠지요? 유아용품을 쓰는 엄마도 아기도, 또 나눔을 통해 지원을 받는 우리 이웃들도 다 같이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세피양의 나눔이 더 큰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름다운재단도 열심히 힘을 보태겠습니다.

* 세피양은 2005년부터 10년 동안 '세피양행복나눔기금'을 조성하여 '장애아동청소년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년 기부 기업

아름다운재단에는 기업 기금을 조성하여 10년 동안 꾸준히 기부 활동을 펼쳐온 기업들이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아름다운재단과 함께 지속적인 기부 파트너십을 이어온 기업들을 소개합니다.

TOYOTA

한국토요타자동차

한국토요타자동차는 한국 사회에서 '좋은 기업 시민'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2005년 7월 '토요타꿈더하기장학기금'(구 렉서스꿈더하기장학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수업료를 내지 못해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저소득 가정의 고등학생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지원해 꿈을 잃지 않고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 7억3천만원을 기금으로 조성하여 나눔을 실천했으며, 매년 장학증서 전달식을 통해 학생들에게 정서적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MURPHY™

머피컨텐츠

유학과 이민에 관한 콘텐츠와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머피컨텐츠는 2005년부터 매년 아름다운재단에서 선발한 저소득 가정의 대학생들에게 단기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특성을 살려 외국 생활이 처음인 학생들이 현지에서 아무런 불편 없이 어학연수를 마칠 수 있도록 출국에서 귀국까지 모든 진행 절차를 지원합니다. 2011년 1월에는 '머피컨텐츠반올림기금'을 조성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넓은 세상에서 새로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해외어학연수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LG 생활건강

LG생활건강

LG생활건강은 2005년 4월 'LG생활건강행복미소기금'을 조성하여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한부모 여성가장 건강권 지원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여성가장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종합검진비와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기금은 LG생활건강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급여나눔 기부금을 내고 기업이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매칭펀드하는 방식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0년간 14억원이 넘는 기금이 마련됐고, 이를 통해 2천명이 넘는 한부모 여성가장들이 건강한 삶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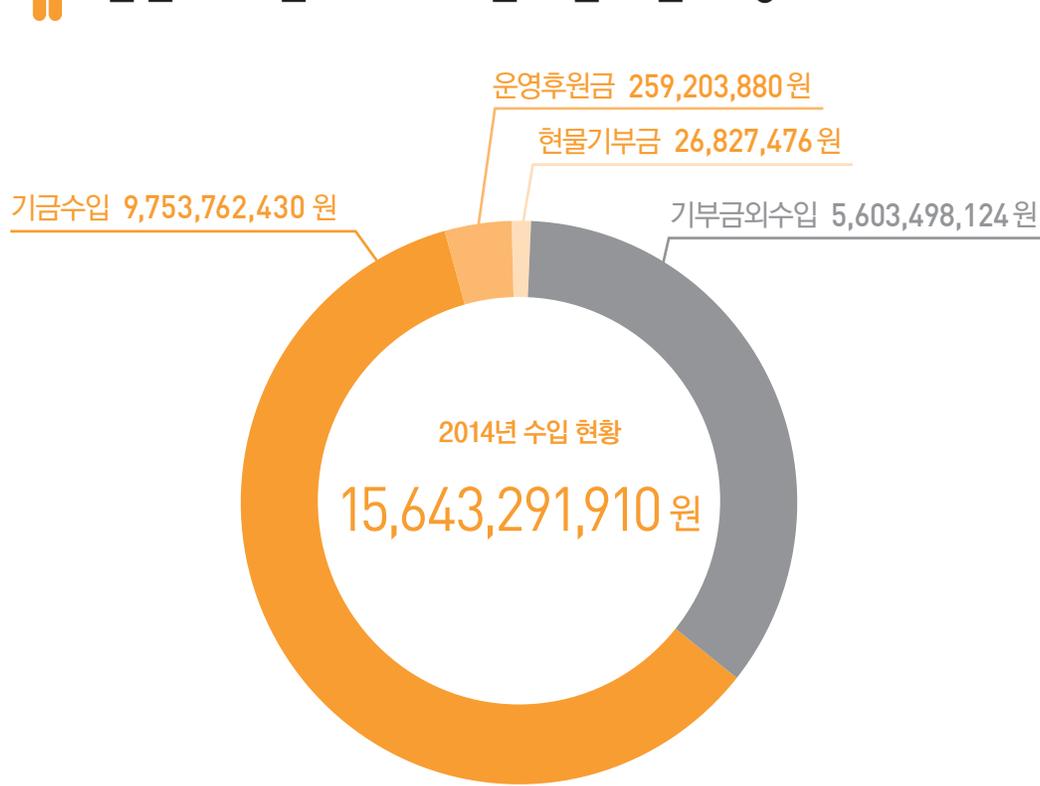
꿈을담는틀

꿈을담는틀

학습지 전문 출판사인 꿈을담는틀은 2003년 설립과 동시에 사회적으로 소외된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2004년 아름다운재단과 인연을 맺은 이후 매년 집필료 수익금 전액을 아름다운재단의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에 지원했으며, 2009년 6월에는 '꿈을담는틀기금'을 조성하여 부모 없이 생활하는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억1천만원이 넘는 기금이 조성됐고, 이를 통해 수많은 소년소녀가장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소중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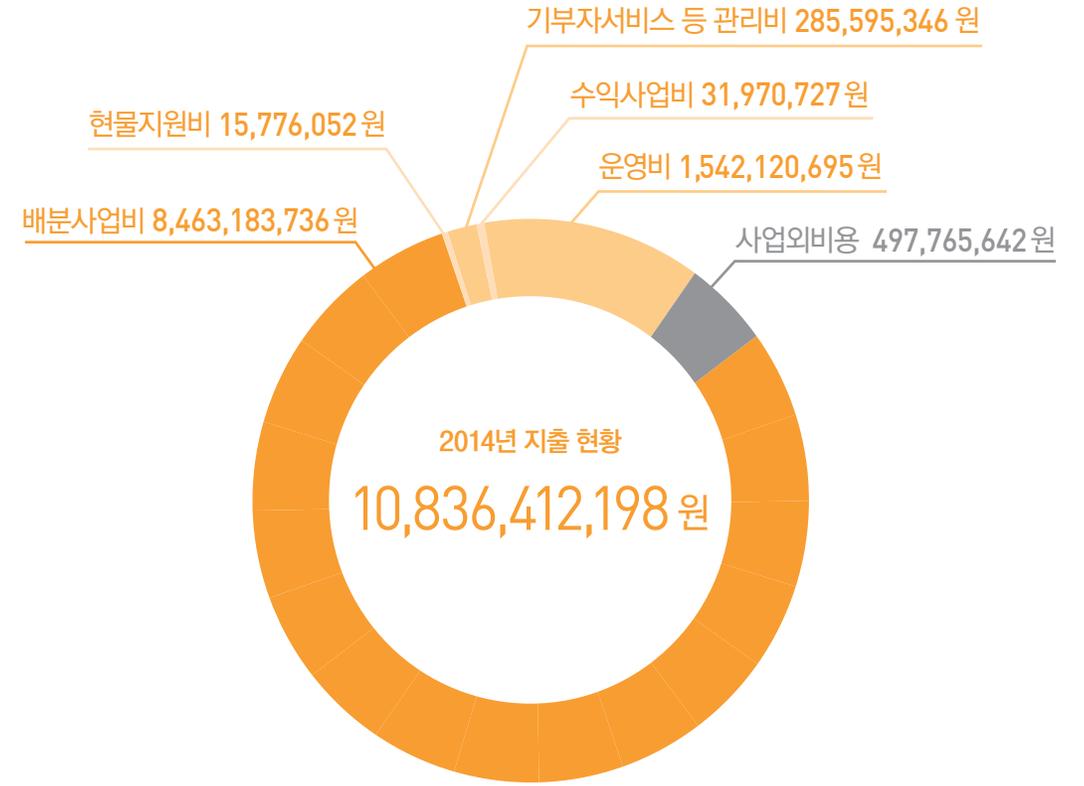


한눈에 보는 2014 아름다운재단 재정



(단위 : 원)

| 구분 | 항목 | 금액 |
|--------|-----------|-----------------------|
| 기부금수입 | 기금수입 | 9,753,762,430 |
| | 운영후원금 | 259,203,880 |
| | 현물기부금 | 26,827,476 |
| | 소계 | 10,039,793,786 |
| 기부금외수입 | 이자수입 | 1,542,100,720 |
| | 배당수익 | 105,994,350 |
| | 사업수입 | 73,394,856 |
| | 보유주식처분이익 | 3,845,688,000 |
| | 수익사업수입 | 32,451,827 |
| | 기타수입 | 3,868,371 |
| | 소계 | 5,603,498,124 |
| | 총계 | 15,643,291,910 |



(단위 : 원)

| 구분 | 항목 | 금액 |
|-------|--------------|-----------------------|
| 사업비 | 배분사업비 | 8,463,183,736 |
| | 현물지원비 | 15,776,052 |
| | 기부자서비스 등 관리비 | 285,595,346 |
| | 수익사업비 | 31,970,727 |
| | 운영비 | 1,542,120,695 |
| | 소계 | 10,338,646,556 |
| 사업외비용 | 법인세 등 | 400,316,108 |
| | 이자비용 등 | 97,449,534 |
| | 소계 | 497,765,642 |
| | 총계 | 10,836,412,198 |



재무제표

(단위 : 원)

| 과 목 | 제 15 (당) 기 | 제 14 (전) 기 |
|------------------|-----------------------|-----------------------|
| 자산 | | |
| I. 유동자산 | 37,773,715,253 | 34,617,042,378 |
| (1)당좌자산 | 37,773,715,253 | 34,585,942,378 |
| 1. 현금및현금성자산 | 13,430,630,979 | 4,546,815,092 |
| 2. 단기금융상품 | 8,961,123,288 | 16,962,061,918 |
| 3. 단기매도가능증권 | 15,191,612,650 | 12,758,154,116 |
| 4. 매출채권 | — | 6,187,060 |
| 5. 미수금 | 18,787,075 | 56,617,331 |
| 6. 미수수익 | 158,538,623 | 68,822,340 |
| 7. 선급금 | 650,390 | 11,351,417 |
| 8. 선급비용 | 130,792 | 137,920 |
| 9. 미수법인세환급액 | — | 161,848,408 |
| 10. 기부물품 | 12,241,456 | 13,946,776 |
| (2) 재고자산 | — | 31,100,000 |
| 1. 상품 | — | 31,100,000 |
| II. 비유동자산 | 35,572,905,373 | 33,670,071,357 |
| (1) 투자자산 | 27,438,550,400 | 26,097,793,879 |
| 1. 매도가능증권 | 17,658,216,184 | 13,397,696,541 |
| 2. 만기보유증권 | — | 2,953,894,222 |
| 3. 보험자산 | 429,521,100 | 395,390,000 |
| 4. 아름다운가게출연금 | 9,350,813,116 | 9,350,813,116 |
| (2) 유형자산 | 4,648,233,988 | 4,746,188,831 |
| 1. 토지 | 4,017,517,801 | 4,017,517,801 |
| 2. 건물 | 885,105,170 | 885,105,170 |
| 감가상각누계액 | (293,156,262) | (204,645,745) |
| 3. 기타의 유형자산 | 144,634,286 | 135,364,286 |
| 감가상각누계액 | (105,867,007) | (87,152,681) |
| (3) 무형자산 | 22,997,957 | 9,601,167 |
| 1. 소프트웨어 | 18,707,957 | 2,451,167 |
| 2. 기타의무형자산 | 4,290,000 | 7,150,000 |
| (4) 기타비유동자산 | 3,463,123,028 | 2,816,487,480 |
| 1. 대여금 | 1,701,105,548 | — |
| 2. 보증금 | 1,762,017,480 | 2,816,487,480 |
| 자산총계 | 73,346,620,626 | 68,287,113,735 |

재무상태표

제 15 (당)기 2014년 12월 31일 현재
제 14 (전)기 2013년 12월 31일 현재

| 과 목 | 제 15 (당) 기 | 제 14 (전) 기 |
|----------------------|-----------------------|-----------------------|
| 부채 | | |
| I. 유동부채 | 3,378,046,436 | 3,171,066,326 |
| 1. 단기차입금 | 3,000,000,000 | 3,000,000,000 |
| 2. 미지급금 | 93,307,087 | 134,310,058 |
| 3. 예수금 | 72,368,232 | 17,902,825 |
| 4. 미지급비용 | 1,006,849 | — |
| 5. 미지급법인세 | 211,364,268 | 18,853,443 |
| II. 비유동부채 | 391,213,273 | 285,655,303 |
| 1. 퇴직급여충당부채 | 391,213,273 | 285,655,303 |
| 부채총계 | 3,769,259,709 | 3,456,721,629 |
| 자본 | | |
| I. 자본금 | 56,134,285,908 | 50,835,234,583 |
| 1. 기본재산 | 326,909,234 | 326,909,234 |
| 2. 기금 | 55,807,376,674 | 50,508,325,349 |
| II.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2,363,343,715 | 2,423,254,616 |
| 1.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 2,639,541,899 | 2,611,340,702 |
| 2.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 (276,198,184) | (188,086,086) |
| III. 이익잉여금 | 11,079,731,294 | 11,571,902,907 |
|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 | 3,436,380,444 |
| 2. 미처분이익잉여금 | 11,079,731,294 | 8,135,522,463 |
| 자본총계 | 69,577,360,917 | 64,830,392,106 |
| 부채와자본총계 | 73,346,620,626 | 68,287,113,735 |

운영성과표

제 15 (당)기 2014년 1월 1일부터

제 14 (전)기 2013년 1월 1일부터

(단위: 원)

| 과 목 | 제 15 (당) 기 | 제 14 (전) 기 |
|---------------------------|-----------------|-----------------|
| [제약이 없는 순자산변동] | | |
| I. 사업수익 | 11,796,861,012 | 9,818,745,014 |
| (1) 고유목적사업수익 | 11,764,409,185 | 9,809,599,943 |
| 1. 기금수입 | 9,753,762,430 | 7,724,111,409 |
| 2. 현물기부수입 | 26,827,476 | 71,244,938 |
| 3. 운영후원금수입 | 259,203,880 | 348,648,639 |
| 4. 이자수익 | 1,542,100,720 | 1,535,411,879 |
| 5. 기금이자수익 | 3,125,473 | — |
| 6. 배당금수익 | 105,994,350 | 87,614,550 |
| 7. 사업수입 | 73,394,856 | 42,568,528 |
| (2) 수익사업수입 | 32,451,827 | 9,145,071 |
| 1. 매출액 | 32,451,827 | 9,145,071 |
| II. 사업비용 | 10,338,646,556 | 8,129,356,284 |
| (1) 사업비 | 8,764,555,134 | 6,646,056,538 |
| (2) 수익사업원가 | 31,970,727 | 9,408,745 |
| (3) 일반관리비 | 1,542,120,695 | 1,473,891,001 |
| III. 사업이익 | 1,458,214,456 | 1,689,388,730 |
| IV. 사업외수익 | 3,846,430,898 | 1,965,360,274 |
| 1.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 | 3,845,688,000 | 1,962,320,400 |
| 2. 이자수익 | 27,038 | 787 |
| 3. 외환차익 | 35,665 | — |
| 4. 잡이익 | 680,195 | 3,039,087 |
| V. 사업외비용 | 497,765,642 | 291,738,049 |
| 1. 이자비용 | 89,773,965 | 91,405,460 |
| 2. 유형자산처분손실 | — | 222,301 |
| 3. 법인세등 | 400,316,108 | 193,826,239 |
| 4. 투자자산처분손실 | 6,989,559 | 995,358 |
| 5. 외화환산손실 | 14,169 | 8,022 |
| 6. 잡손실 | 671,841 | 5,280,669 |
| VI. 순자산의 증가 | 4,806,879,712 | 3,363,010,955 |
| VII. 제약이 해제된 순자산 | (5,239,140,424) | (3,071,736,136) |
| 1. 기금간전출입에 따른 제약의 해제 | (5,239,140,424) | (3,071,736,136) |
| IV. 제약이 없는 순자산의 증가 | (432,260,712) | 291,274,819 |

| 과 목 | 제 15 (당) 기 | 제 14 (전) 기 |
|----------------------------|----------------|----------------|
| [제약이 있는 순자산변동] | | |
| I. 기초순자산 | 53,258,489,199 | 50,928,391,151 |
| 1. 기본재산 | 326,909,234 | 326,909,234 |
| 2. 기금 | 50,508,325,349 | 47,436,589,213 |
| 3.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 2,423,254,616 | 3,164,892,704 |
| II. 기말순자산 | 58,497,629,623 | 53,258,489,199 |
| 1. 기본재산 | 326,909,234 | 326,909,234 |
| 2. 기금 | 55,807,376,674 | 50,508,325,349 |
| 3.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 2,363,343,715 | 2,423,254,616 |
| III. 제약이 있는 순자산의 증가 | 5,239,140,424 | 2,330,098,048 |
| [총순자산변동액] | | |
| I. 기초순자산 | 64,830,392,106 | 62,209,019,239 |
| 1. 기본재산 | 326,909,234 | 326,909,234 |
| 2. 기금 | 50,508,325,349 | 47,436,589,213 |
|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3,436,380,444 | 3,040,185,331 |
| 4. 미처분이익잉여금 | 8,135,522,463 | 8,240,442,757 |
| 5.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 2,423,254,616 | 3,164,892,704 |
| II. 기말순자산 | 69,577,360,917 | 64,830,392,106 |
| 1. 기본재산 | 326,909,234 | 326,909,234 |
| 2. 기금 | 55,807,376,674 | 50,508,325,349 |
|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 | 3,436,380,444 |
| 4. 미처분이익잉여금 | 11,079,731,294 | 8,135,522,463 |
| 5.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 2,363,343,715 | 2,423,254,616 |
| III. 총순자산의 변동 | 4,746,968,811 | 2,621,372,867 |

감사보고서 전문은 아름다운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외부 감사인의 보고서

재단법인 아름다운재단 이사회 귀중

우리는 별첨 된 재단법인 아름다운재단(이하 '재단')의 재무제표를 감사하였습니다. 해당 재무제표는 2014년 12월 31일과 2013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운영성과표 및 현금흐름표 그리고 유의적 회계정책에 대한 요약과 기타의 설명정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

경영진은 한국의 일반기업회계기준 및 내부규정에 따라 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정하게 표시할 책임이 있으며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 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한 내부통제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감사인의 책임

우리의 책임은 우리가 수행한 감사를 근거로 해당 재무제표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기준은 우리가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며 재무제표에 중요한 왜곡표시가 없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을 얻도록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재무제표의 금액과 공시에 대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한 절차의 수행을 포함합니다. 절차의 선택은 부정이나 오류로 인한 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위험에 대한 평가 등 감사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감사인은 이러한 위험을 평가할 때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및 공정한 표시와 관련된 내부통제를 고려합니다. 그러나 이는 내부통제의 효과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또한 재무제표의 전반적 표시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경영진이 적용한 회계정책의 적합성과 경영진이 도출한 회계추정치의 합리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합니다.

우리가 입수한 감사증거가 감사의견을 위한 근거로서 충분하고 적합하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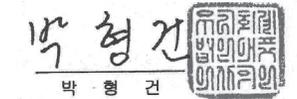
감사의견

우리의 의견으로는 재단의 재무제표는 재단법인 아름다운재단의 2014년 12월 31일과 2013년 12월 31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양 보고기간의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제정한 '비영리조직의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지침서' 및 주석2에 기재된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중요성의 관점에서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

비교표시된 2013년 재무제표는 종전 회계감사 기준에 따라 감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우리회계법인
대표이사 공인회계사



2015년 2월 11일

이 감사보고서는 감사보고일(2015년 2월 24일)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보고서일 후 이 보고서를 열람하는 시점사이에 첨부된 재단의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이로 인하여 이 감사보고서가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2014 사업별 기금 안내

공익활동 지원

| 사업명 | 지원내용 | 기금 |
|--------------------------|----------------------------------|--|
| 변화의 시나리오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 시민참여소통에 기반한 신생 공익단체 인큐베이팅 지원 | 1% 기금, 인큐베이팅1_AMC팩토리기금 |
| 변화의 시나리오 스폰서 지원사업 | 공익단체의 3개월 이내 프로젝트 지원 | 1% 기금 |
|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A 지원사업 | 공익단체의 3년 이내 신규·연속 프로젝트 지원 | 1% 기금 |
| 변화의 시나리오 프로젝트B 지원사업 | 공익단체의 1년 이내 프로젝트 지원 | 1% 기금 |
| 변화의 시나리오 활동가 재충전 지원사업 | 공익단체 활동가 재충전 프로그램 지원 | 내일을 위한 기금, 호민기우봉기금 |
| 변화의 시나리오 특별지원 - 인프라 지원사업 | 공익단체 사무 및 활동 기자재 지원 | 공익인프라1%기금 |
| 변화의 시나리오 특별지원 - 도서관 지원사업 | 작은도서관 도서·기자재 구입 및 프로그램 지원 | 혼자만잘살면무슨재민겨기금, 책날개를단아시아기금, 송하원교수의책날개기금 |
| 변화의 시나리오 활동가 자녀 보육비 지원사업 | 공익단체 활동가 자녀 보육비 지원 | 탁아기금 |
| 소금창고기금 공익제보자 지원사업 | 공익제보자와 함께 하는 대학생 캠프 지원 | 소금창고기금 |
| 호민기우봉기금 풍력공로자 지원사업 | 풍력발전 공로자 시상 지원 | 호민기우봉기금 |
| 공익활동 지원 배분조사 및 진행비 | 사업 조사, 전문가 자문, 현장 조사 등의 조사 및 진행비 | 1% 기금, 나눔의복덕방기금 |

아동청소년 지원

| 사업명 | 지원내용 | 기금 |
|-------------------------|------------------------------------|---|
| 청소년 자발적 여행활동 지원사업 | 청소년 스스로 기획하고 떠나는 여행프로젝트 지원 | 길위의희망찾기기금, 로템철길위의희망기금, 막무가내대장부기금, 아름다운도보여행기금, 환상의짜궁기금 |
| 청소년 자발적 사회문화활동 지원사업 | 청소년 스스로 기획하고 실천하는 사회문화활동 프로젝트 지원 | 작은우산기금, 한국의대니서만들기기금 |
| 아동청소년 특기적성 지원사업 | 아동청소년의 특기적성과 재능개발을 위한 문화교육 프로그램 지원 | 하라기금, 이알플러스사랑플러스기금, 오피송코리아기금 |
| 아동청소년 문화체험활동 지원사업 | 아동청소년의 문화체험활동 지원 | 행복한침표기금, 꿈꾸는나무기금, 성도지열삼더기금, 아름다운영화인기금, 효주기금 |
| 아동청소년 소원 이루기 지원사업 | 문신제거가 필요한 청소년 문신제거 시술 연속지원 | 춘원당100년생각기금, 소원우체통기금 |
|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 저소득 고등학생 전학년 교육비 지원 | 징검다리기금, 김재중부메랑기금, 꿈꾸는대학로기금, 김영덕하계장학기금, 텐볼스토리수만회기금, 도요타꿈더하기기금, 이봉재박영임약속기금, 정진권희망나눔기금, 김제동환상의짜궁기금, 이알플러스사랑플러스기금 |
| 성적우수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 저소득 성적우수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 아름드리기금 |
| 성적우수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 저소득 성적우수 대학생 교육비 지원 | 아름드리기금 |
| 성적우수 대학생 자기계발 프로젝트 지원사업 | 저소득 성적우수 대학생 자기계발 프로젝트 지원 | 아름드리기금 |
|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사업 | 저소득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 미래세대1%기금, 티맥스함께나눔기금, 지혜양기금, 큰사람기금, 100+10기금, 박홍이취스퍼링호프기금, 이재은·임유경미래약속기금, 권경옥기금, 지진린준의겨자씨기금, 카메리아기금 |
| 아동양육시설 퇴소거주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 아동양육시설 퇴소 및 거주 대학생 교육비 지원 | 한화도시개발기금, 김군자할머니기금, 정진권희망나눔기금, 김현중장학기금, 신성이엔지한길기금, 황복란평생의꿈장학기금 |
| 대학생 단기어학연수 지원사업 | 아동양육시설 퇴소 및 거주 대학생 단기어학연수 지원 | 한화도시개발장학기금, 미래세대1%기금, 머피컨텐츠반올림기금 |
| 하라기금 아동복지시설 지정기탁사업 |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 하라기금 |
| 청소년진로탐색 지원사업 | 청소년과 함께 진로교육 로드맵 만들기 지원 | 나눔의복덕방기금 |
| 서장석 리더십 프로그램 지원사업 | 경기고등학교 경기창의인재아카데미 및 상설동아리 활동 지원 | 아름드리기금 |
| 마이크로소프트 청년IT지원 지정기탁사업 | 청년 IT취업교육 지원 | 나눔의복덕방기금 |
| 아동청소년 지원 배분조사 및 진행비 | 사업 조사, 전문가 자문, 현장 조사 등의 조사 및 진행 | 미래세대1%기금 |

* 2014년 한 해 동안 아름다운재단 사업에 지원된 기금을 안내드립니다.

뚜벅뚜벅 꾸준히, 1%다달나눔

꾸준하다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매일 30분을 걷고 매월 적금을 쌓고
주말이면 부모님께 안부전화를 하며
퇴근길마다 경비 아저씨께 인사를 건넬 때
내 삶이 조금씩 나아진다는 것을.

아름다운재단도 알고 있습니다.
공익활동을 꾸준히 지원하고
사각지대를 찾아 꾸준히 알려낼 때
놀라운 사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변화를 이끌어낸 아름다운재단의 꾸준함, 이제 당신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발행일 2015년 6월 1일
발행인 예중석
기획·편집 아름다운재단 홍보팀
주소 110-035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 19길6
전화 02-766-1004
팩스 02-6930-4598
홈페이지 www.beautifulfund.org
디자인·인쇄 디자인생선가게 (02-3673-2220)

* 2014 아름다운재단 나눔가계부는 권당 1,137원으로 제작됐습니다.

+ 1%다달나눔이란 +

나만의 1%를 정하여 다달이(매월 정기적으로) 기부하는 방법으로
일상 속에서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일구어 나가는 씨앗을 뜻합니다.

+ 기부회원 참여하기 +

www.beautifulfund.org
www.꾸준하다.org
02-766-1004